

一家 김용기 선생 10주기 세미나

주제: 일가 김용기 선생의 생애와 사상

일 시: 1998년 9월 5일(토요일) 오후 2시

장 소: 농협중앙회(서대문)

주 최: 가나안농군학교/일가기념재단

후 원: 농협중앙회/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일가기념재단

복민주의

일천구백삼십년대 일제의
가혹한 민족말살정책에
맞선 농촌청년들의 항일
민족저항운동에서 시작된 사상이다
성서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
빈곤을 막고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농촌 황무지 개척교회 갱신 및
국민의식과 생활혁명운동을
실천하는 사상이다
육천만 민족을 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복지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넘어서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이룩하려는 사상이다

차 례

사 회 : 정평림 교수/운영위원

■ 개 회 사 림영철 교수/평택대, 운영위원

■ 주제강연

‘한국농민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一家의 생애’ 이만열 교수/숙명여대

■ 연구발표

- ‘북민운동의 등장과 영향’ 한규무 교수/광주대
- ‘국난극복을 위한 일가 김용기 장로의 생애사’ 김기석 교수/서울대

■ 논 찬

- 「북민운동의 등장과 영향」에 대하여 김형석 사무총장/한민족복지재단, 운영위원
- 「북민운동의 등장과 영향」에 관한 토론 김지자 교수/서울교대, 운영위원
 - 김기석 교수 논고의 평가 및 토론을 위한 글 고재성 박사/가나안농군학교 기획실장
 - 김기석 교수의 글에 관한 논찬 오세택 목사/두레교회, 운영위원

■ 종합토론 문용린 교수/서울대, 운영위원장

인사말

다시 일가 선생의 본을 따라

일가 선생이 세상을 떠나신 지도 벌써 1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분을 사모하고 따르던 많은 동기(同期)들이 그 분의 따뜻하셨던 모습과 그분의 말씀이 그리워서 오늘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덴마크의 국운이 쇠하여 국민들이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나라를 재건하셨고,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그 터를 닦은 그룬트비히 목사처럼 일가 선생은 한강의 기적과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그 터전을 닦아 놓으신 우리들의 지도자이십니다.

고난의 시기인 요즈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 지 10년 동안 우리들은 그 분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살았는가. 그 분이 가르쳐 주신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리라고 다짐했던 우리들, 그 분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늘날 비참하게 전락한 조국을 보면서도 이를 막을 대책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데, 더구나 행동화·실천화하는 데 전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일가 선생이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보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 나라의 주인이 되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지금 너희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고 몹시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오늘 일가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10주년을 기념하는 이 세미나는 우리 복민 동기들이 모여 일가 선생의 뜻과 사상, 신앙, 그리고 특별히 그 분의 생활과 애국심을 오늘의 이 난국에 재조명하여 우리가 가야 할 정도를 찾고, 다짐하며, 널리 알리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이만열 교수와 연구발표에 응해 주신 한규무·김기석 두 교수, 논찬을 해주신 김형석 사무총장, 김지자 교수, 고재성 실장, 오세택 목사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농협중앙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 제2 제3의 일가 선생이 태어나는 계기가 되고,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IMF도 몰아내고, 도덕과 신뢰가 되살아나며, 아름답고 희망찬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는 역꾼들에게 힘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1998년 9월 5일

세미나 준비위원장 림영철 드림

주제강연

한국 농민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일가의 생애

이 만 열 (숙명여대 교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

1. 머리말

一家 金容基(1912~1988)는 거의 80 평생을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촌을 섬기고 농민을 계몽한 선각자요 농촌운동가다. 그는 단순히 농사에 파묻혀 부지런히 농사만 지었던 분이 아니고,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농본사상을 근대적으로 해석하여 새롭게 실천한 운동가요 지도자였다. 무엇보다 그에게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그의 농업에 대한 사상과 실천력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 있다는 점이다.

김용기는 저술가로 자처한 적은 없지만, 체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글로 엮어 많은 저술1)을 남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의 농촌생활 개선을 위한 갖가지 생각과 방안들은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터득할 수 없는 산 교훈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는 근현대의 가장 저명한 實事求是적인 인물로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고 본다.

그에 대한 연구가 여러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그를 우리나라 농민운동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언뜻 보면 그의 생애가 종래의 농민운동가가 취했던 방식을 답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는 그의 행적이 잘 드러나지 않아 농민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용기 선생이야말로 우리 나라 근, 현대 농민운동사에서 새로운 방식의 농민운동을 주도한 인물로서 가장 뚜렷이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음에서 천천히 풀어갈 것이다.

2. 출생과 성장

김용기는 京畿道 楊州郡 瓦阜面 陵內里의 禮峰山을 뒤로 한 奉安 마을에서 논 15두락, 밭 2천8백 평의 중농인 안동 김씨 金春敎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동네의 서당에 들어가 13세까지 明心寶鑑, 通鑑, 小學 등을 공부하면서 頭用直 手用恭 足用重의 교훈을 깊이 새기며 자라났다. 그의 부친은 넷째 아들 용기가 병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전도인으로 부터 받은 전도문서 중 요 3:16절의 말씀에 감동, 그것을 유교식의 順天者興 逆天者亡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양반 가문에서는 드물게 예수교인이 되었다.

교회사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선교사들의 전도가 시작되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1895년에 이웃하고 있는 廣州郡에서는 新垔里교회가 설립되었고 1901년에는 광주 東幕교회와 新沙里교회가 각각 설립되었으며, 1902년에는 양주군 와부면 松村里의 龍津에서도 교회가 설립되었다.2) 1907년 長老敎의 4선교부가 협력하여 大韓예수교長老會 獨老會를 조직하고 전국의 선교지역을 재정비하였다. 이 무렵부터 양주군에는 주로 郭安連(C.A.Clark)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1908년에는 양주군 芝沙里 교회의 예배당

을 건립하고 烽火峴 교회는 미 감리회에서 장로교회로 移屬되었다. 1911년에는 양주군 봉안리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같은 면(와부면)의 송촌리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였다.3)

서당의 학업을 마친 1년 후, 14세 때에 김용기는 양주에 있는 廣東中學校에 입학하여 성경, 산술, 지리, 역사를 배웠고, 여기서 참다운 지도력에 대한 훈련을 쌓게 되었다. 이 학교는 일찍 기독교인이 되어 개화에 눈뜨게 되었던 이 지역 출신의 夢陽 呂運亨이 설립한 학교였다. 그가 이 곳에서 여운형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생애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해방 직전에 김용기가 몽양을 봉안 마을로 모셔왔고 해방 후에 정치운동에 일정하게 관여한 것도 이 때의 몽양과의 만남이 인연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일찍부터 민족애를 갖게 된 것도 몽양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김용기가 광동학교 입학에 앞서 8살 때 그는 3·1운동을 맞았다. 그는 아버지가 마을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이웃마을 사람들과 3, 4 백명이 德沼까지 가는 것을 보았고 태극기의 물결을 보면서 조국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국사를 배웠고 광동학교에서는 특히 조원택 선생으로부터 ‘민족혼’을 불러 일으키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 서당교육과 광동학교 교육, 아버지의 신앙, 전통교육과 스승들의 민족, 근대 교육, 이러한 교육으로 그는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사유에 근거한 민족주의 의식과 합리적인 생활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19세 때에 광동중학을 졸업한 그는, 당시 그 나이의 젊은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뜻을 갖고, 중국의 동북지역(만주)으로 갔다. 그러나 심양(봉천) 西塔교회의 李成洛 목사의 중용으로 귀향하였고, 자신과 민족의 앞날을 나름대로 설계하려고 성경을 탐독하면서, 檀君과 世宗大王的의 유적이 있다는 강화도 마니(마리)산으로 가서 40일간 기도예 몸을 던진 적도 있었다. 그가 마리산을 찾은 것은 아마도 ‘마리산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함인 듯하다. 1915년부터 해마다 열린 평신도 중심의 ‘마리산 부흥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신앙적 체험을 강조” 하는 한편 “민족의 국조신앙의 근원지인 참성단에 올라 기도” 하는 것을 통해 ‘민족주의 신앙’을 배양하고 있었던 것이다.4)

김용기가 광동학교를 졸업했을 무렵, 그는 김봉희와 결혼하였다. 그는 결혼한 후에 보통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아내를 서울의 성경학교에 보내어 공부하게 하였다. 23세 되던 해에 그는 신앙과 생활의 지도자였던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다. 그의 부친의 연세가 58세였다. 그의 아버지는 창세기 3장 16절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농사꾼이 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인일수록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야말로 산업의 원동력인데, 역대로 지식인들이 농사를 기피하고 무식한 村氓들만 이 농사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문명 등이 후진성을 불면케 되어 결국 日人들의 식민지가 되었다.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려면 먼저 경제자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곧 지식인이 농사에 참여하여 농산물을 증산하는 길밖에 없다.” 5)

그가 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꾼’으로 지낸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같은 유언이 큰 동기가 되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아버지의 유언은 또 농사에 대해 정립하지 못한 자신의 사상을 확립시켜 주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농사가, 이윤이 적다느니, 힘이 들어 못할 것이라느니, 희망없는 직업이라느니 하고, 농사꾼은 천대받는다느니 우매해진다고들 하지만,

자신은 이러한 생각을 편견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농사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된 데에도 아버지의 유언이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한마디로 농사만큼 이윤이 남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무엇보다 이윤이 많은 것이 농사일이었다. 벼농사만 해도, 봄에 벼씨를 뿌려 6개월만 잘 가꾸면 벼씨 한 낱알 당 1,200~1,800 낱알이 된다. 조는 7,000~8,000 낱알이 되고, 참깨는 4,000~5,000 낱알이 된다. 채소 역시 호박씨 한 알에 애호박 300개와 3관짜리 늙은 호박 12개를 딸 수가 있고, 수박은 4개월 동안에 한 알 당 1관짜리 7개를 딸 수가 있고, 참외는 12~14개의 수확을 할 수가 있다. 거기에는 물론 종자개량, 토질개량, 영농방법의 개선 등 기술과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6)

물론 농업에 대한 그의 철학이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러한 철학의 바탕에는, 효도를 강조했던 그의 신념과 함께, 아버지의 유언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3. 奉安 理想村7)

김용기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농사짓기에 나선 지 2년만에 동네의 두레패에서 副領座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 아마도 당시 그 동네에서는 농사일과 경조사를 위해 두레 조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광동학교에서 쌓은 지도자적인 훈련과 두레패에서 얻은 신망을 기초로 하여 농촌을 지상낙원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가 꿈꾸었던 이상촌은 10家を 중심으로 이루는 촌락으로서 계획 단계에서 24,000평의 토지와 5천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이 자금과 토지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2백원의 자금으로 중앙선 철로 공사관 옆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2년간 장사하여 3천5백원의 거금을 벌었으나, 목표액 5천원에 미달하였으므로 어떻게든 목표액을 벌기 위해 금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년 반만에 그가 번 모든 돈은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다. 이 때 그는 돈을 잃은 대신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잃은 돈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서, 첫째 신성한 낙원건설은 욕심 많은 투기로써 하려던 당초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둘째 이상촌을 건설하는 것은 돈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와 땀으로써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었다.8)

그는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 그는 공동적인 이상촌 건설에 앞서 자신이 먼저 개간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로 하였다. 그는 광주 小城의 돈놀이하는 사람을 찾아가 담보 없이 4백원을 빌렸다. 그의 확신과 용기가 대금업자를 설득시킨 것이다. 빌린 돈에서 90원으로 마을 너머의 평당 3전하는 산 3천평을 사서 개간을 시작하였다. 그는 과목을 심고 젖염소 한 마리를 사서 키우며 그 젖을 마셨다. 주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1년 후에는 고구마 40가마를 수확할 수 있었다. 그가 개간에 뛰어들면서 가졌던 것은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치밀한 계획 그리고 맨손뿐이었지만, 바로 이것이 그 뒤 5회나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확신 그리고 그 방법을 터득하게 만든 그의 첫 성공적인 개간사업이었다. 그는 첫 개간이 그 뒤의 개간사업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설명하는 한편 그 때 쌓았던 개간의 방법도 자세히 설명했다.

“비록 3년 동안의 경험이었지만, 그 동안의 경험은 나에게 개간농장의 경영법을 거의 통달할 만큼 터득시켜 주어, 그 곳의 개간을 비롯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다섯 군대나 직접 내 손으로 황무지 개간을 했다.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하겠지만, 그 때 얻은 경험을 그대로 반복하면 과히 실패가 없었으므로 여기에 나의 그 황무지 개척, 농장경영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9)

그의 황무지 개간은, 개간지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서부터 개간지의 지형, 지질의 선택과 감별법, 개간 진행 일정, 자금 사용계획, 농장건설 순차, 6~7차년에 이르는 수지결산의 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타주의 사항’에서, 객지로 개간하러 갈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4년 쯤 후에나 알리라든지, 되도록 말을 적게 해야 한다든지, 지방 사람들에게 학벌이나 富를 내세우지 말라든지, 개간지에 무슨 농장건설지 운운하는 간판이나 표말을 붙여서는 안된다든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든지 하는 점 등을 세심하게 지적해10) 놓은 것은 그의 개간사업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얼마나 주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처음 개간한 그 땅은 3년 후에 1,200원에 팔렸다. 밭(400원)을 갖고 나머지 8백원으로 그는 마을 앞의 산야 4천1백 평을 구입하고, 이상촌 건설 동조자를 모집, 10호로 제한하고 부락의 가호 배치에 따라 그곳에 집을 짓도록 하되 가족 수에 따라 대지평수를 증감하였다. 그는 부락민들에게 사치를 금하고 위생을 중요시하며 매호마다 산양을 비롯하여 가축을 기르게 하고 밭농사를 주로 하며 복숭아, 배, 포도 등을 재배하는 한편 고구마 생산에 주력하였다. 뒷날 그는 이렇게 고구마 생산에 주력하게 된 연유를 두고, 고구마가 척박한 토질에도 잘 되는 작물이기도 하지만, 일제 당국이 이것을 공출해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술회한 적이 있다.

이렇게 고구마 생산에 힘쓴 결과 첫해에 40여 가마니에 불과하던 수확이 그 다음 해에는 마을 전체에서 240여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고, 해마다 2백여 가마니를 생산하게 되었다. 문제는 고구마의 저장법이었는데, 3년간 120가마니를 썩히고 난 뒤 4년만에 1년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 성공하게 되었다. 고구마의 저장법은 당시 농민들의 큰 숙제였는데 김용기와 봉안촌이 이를 해결함으로 근처의 여러 농가들은 물론 경기도 농민훈련 道場長이며 고구마의 권위자라고 하는 일본인 武田도 견학하여 이 저장법을 배워갈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봉안 이상촌은 출발 년도에 40명이던 것이 5년 후에는 총 64명으로 늘어났고, 6,500평이 13,700평으로, 논 9천평이 13,900평으로, 과수원 4천평이 12,000평으로 늘어났고 소 2마리, 돼지 4마리, 닭 1백5마리, 산양 8마리를 갖게 되었다.11) 이러한 경제적인 수치의 성장에다 이 이상촌의 삶의 질이 크게 변화되고 있었다. 김용기의 증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호마다 거의 1인 이상씩 서울의 중학교에 진학을 시켰으며, 가옥은 종이창이던 것이 거의 모두 유리창으로 바뀌었으며, 다섯 채의 집이 기와지붕을 올리게 되었으며, 전체의 부락민 64명을 한꺼번에 회식할 수 있는 설비가 매호마다 갖추어졌으며, 연 2회 이상 의사의 진료를 받아 부락 안에는 기생충 환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12)

이 이상촌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이 이상촌이 기독교신앙에 근거하여 동지애로 뭉쳐

자신감을 얻었고 이 이상을 전조선적으로 전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지애와 관련하여, 그와 뜻을 같이 한 청년으로 呂運赫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운혁은 여운형의 族弟로서 1935년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몸이 허약하여 휴양 차 고향 陽平에 돌아와 피차 뜻이 통하게 되어 이상촌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신적 지주인 교회에서는 장로와 집사로 봉사하면서 이상촌 실현에 헌신했다. 김용기가 『봉안이상촌』의 저자 이일선에게 “이제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참을 수 있다는 것 또는 전조선에 이와 같이 실시하면 농민이 행복된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강한 신념을 얻은 것만은 소득이라 하겠습니까” 13)라고 말한 것은 봉안이상촌을 시작한 지 10여년 후이지만, 그 동안 이러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이같은 신앙과 동지애로 뭉친 공동체의 결과였던 것이다.

한편 봉안이상촌은 일제 강점하에서 ‘민족애’로 뭉쳐진 공동체였다. 그들이 이상촌을 설립하려고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는 한국의 농촌현실을 고려할 때, 식민지 백성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사회적 민족모순을 해결하려는 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민족모순을 해결하기 전에는 한국 농촌의 열악한 경제 사회적 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음직하다. 여기에서 봉안이상촌은 민족애와 만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일제 말기의 그와 봉안촌의 민족운동에 관한 이일선과 김용기의 증언이다.

“이 촌 사람들은 전부가 허물어진 조국을 원수의 손에서 회복하려는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일본의 강제 창씨제도에도 끝끝내 항쟁한 김용기 씨 이하 몇 사람은 8·15 해방기를 자기의 성명을 가진 대로 맞이하였으며, 학병제도로 인하여 취학 중 거부하고 도주한 6, 7인의 청년을 촌에서 숨겨두고 보호하여 8·15에 이르렀고, 징병 연령 해당자인 5인을 정신 이상으로 가장케 한 후 도주시켜 서울 등지의 집에 숨겨 보호하여 8·15까지 이르렀으며, 징용 해당자를 이 촌에 받아들여 농업에 종사케 하여 보호하였고, 1944년 10월 8일에는 양평 용문산에 각 군의 대표를 소집하여 공출 반대, 징병 징용 불응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었다.” 14)

“마침내 나는 좀더 적극적인 반일활동을 목표로 1944년 10월 8일, 양평 龍門山에서 동네 각부 농민대표들과 회동하여 공출반대, 징병, 징용 불응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었다. 그 방안이란 각 군, 면, 리가 철통같이 단합하여 징병, 징용 해당자를 상호교환, 은닉, 기피케 하고 그 은닉방법은 그 동안 내가 실제로 실행한 대로 할 것이며, 공출반대의 방안으로는 가능한 한, 논농사를 짓지 말고 공출을 하지 않는 고구마 농사 즉 밭농사를 주로 지어 그것을 식량으로 대용하자는 것 등이었다. 그 때 모인 각군 대표는 양주에 필자, 양평에 李章浩, 崔龍根, 權重勳, 申在翼, 崔龍海, 여주에 辛弘鎭, 고양에 朴性復, 홍천에 朱翰衡 등이었다.” 15)

봉안이상촌은 민족해방 운동자들의 은신처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경성 종로에서 탈출한 민족운동가 全 모를 8·15까지 광주 同志家에 보호케 했는가 하면, 만주에서 활동하던 박모 중위는 칭병하고 이 촌에 와서 독립군을 조직, 항일투쟁에 나설 것과 장차 국군 편성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항일 투쟁계의 선배들이 빈번히 내왕하여 지하운동의 본부가 되다시피 하였고, 저녁에는 단파 라디오를 통해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중학 5년생과 소학교 직원,

전문학생 약 30여명의 청년들이 핵심부대가 되어 민족의식을 고무하고 투쟁케 하였다. 봉안 마을의 각 집 문전과 정원에는 일제시대에 심은 다섯, 여섯그루 이상씩의 무궁화가 있었을 정도로 그들의 민족의식은 남달랐던 것이다.16)

일제 말기 여운형이 봉안촌에 와서 기거하게 되었다. 광동학교의 제자였고 평소에 친분을 쌓아왔던 김용기는 여운형이 서울에서 강제 소개를 당하여 갈 곳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식구들을 안동하여 행랑채에 모셨던 것이다. 이 때문에 김용기는 당국의 주목을 받아 이틀이 멀다하고 서울의 보호관찰소에 불러 다니며 여운형과의 관계를 추궁당하게 되었다. 해방 후 선생의 생일을 이 곳에서 마련하고 해외의 쟁쟁한 애국지사들까지 초빙했던 김용기는 여운형에게, 신앙을 가지라는 것과 좌우의 사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 정계에서 은퇴하라는 것 등을 권했으나, “그 때 선생은 끝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비운의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고 애석하게 생각하였다.17) 해방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적이면서 사회주의적인 정부의 수립을 기대했던18) 김용기는 그의 스승이요 향리의 기독교적 선각자이기도 했던 여운형에게 이렇게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해방 후 김용기로 하여금 잠시나마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다시 개척적인 농사꾼으로—삼각산 농장에서 가나안 농장까지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 주었다. 일제 치하에서 민족운동에 일정하게 헌신하였던 김용기에게는 해방이 남다른 포부를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상촌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시켜 덴마크와 같은 이상국을 건설해 보자”는 ‘마지막 꿈’을 이룰 날이 도래되었다고 판단하고 8월 20일 상경하여 동지들의 규합에 나섰다. 그는 농민동맹을 조직하여19) 자신의 이상촌 운동계획을 구체화하고 정부가 수립되면 이를 정책으로 건의하려고 하였다. 그는 <농민은 한데 뭉쳐 이상촌을 건설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상촌 운동을 벌이기 위해 <농민동맹>을 조직하려 했으나 당시 좌익계의 조직력을 배경으로 진행되던 ‘許 모의 農民組合’과 대결,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서울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 해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 소식이 들리자 그는 이에 반대하는 선언문 수천장을 등사, 학생들을 동원하여 시내 요소 요소에 살포케 하다가 4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체포, <임시군정치안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주모자임을 자백하자 다른 사람들은 석방되고 자신은 군정반대 죄목으로 5년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洪淳燁 등 10여명의 변호인의 탄원으로 석방되었다.

재판에까지 회부된 그의 선언문의 요지는 <남쪽의 미군도 북쪽의 소련군도 물러가라>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남쪽의 미군도 물러가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미국’을 구세주처럼 생각하고 미군정에 빌붙어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상황에서, 특히 당시 조금 껌다 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더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가 가졌던, 신탁통치를 하려면 <미군도 물러가라>는 그의 부르짖음은 그의 의식의 균형성을 보여주고도 남는 대목이라고 본다. 민족과 조국에 대한 신념과 정열이 강했기에 그는 자신의 이같은 정치적인 행보가 벽에 부딪혔을 때에 다시 심각하게 자신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서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후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로 몰려들 때, 농민운동의 형태이긴 하지만 김용기도 한 때 정치에 뜻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곧 농민운동이든 정치든 그것이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이상촌을 건설하려는 뜻은 정치나 농민운동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농군의 손발로 또 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 그는 운동의 좌절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뜻이 무엇임을 깨닫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진로를 두고 하나님께 앞드렸다. 그는 자신의 진로를 다시 정립해야 할 때에는 조용히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다. 그의 생애에는 모세의 시내산과 예수님의 겟세마네가 늘 떠나지 않았다. 이 무렵의 그의 간절한 기도는 바로 압복강 가의 야곱을 연상시킬 정도로 대결적이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갖는 뜻은 진정한 농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그는 봉안으로 내려와 자신의 농장을 90만원에 팔아 그 자금으로 1946년 10월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기리 <삼각산 농장>을 접수하여 황폐된 땅을 다시 개간했다. <삼각산 농장>은 지금의 자하문 밖에서 삼각산 쪽으로 가다가 왼쪽 산자락에 약간 들어가 터잡은 1만3천여 평이었는데, 원래 이 땅은 어느 부호가 샀다가 11년이나 묵혀 둔 땅이었다. 거기에는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는 3년 반 동안 노력, 과수원을 고쳐 농게 되자 자신은 거기서 자신의 임무가 끝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1950년 5월에 다시 자리를 찾게 되었다. 구기리 <삼각산 농장>은 해방 후 전국적인 부흥회 강사로 활동하였고 ‘부흥성가’를 많이 작사한 유재현 목사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농촌의 부흥을 통해 조국을 굳건하게 세우려는 김용기 장로의 이상과, 해방 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황폐해진 心田을 起耕하여 민족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려는 유재현 목사의 의지가 만나게 되었다. 지금의 삼각산 수도원이 자리잡은 곳이 그곳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유목사의 의지는 6·25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갔다. 그가 남북되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부터 김용기는 농민단체에 출강하게 되면서 농촌부흥을 위한 그의 사상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건국 전후한 시기에 그는 <농촌진흥협회> 위원들 앞에서 강연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농사철학을 개진하는 첫 기회였다. 이 무렵에는 이미 전국에 ‘농사관계 단체가 82개’나 조직되었을 정도로 당시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면서 단체부터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이다. 그는 건국 초에 단시일 내에 농촌과 정부를 연결시켜 이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강연회에서, 歸農 실천을 부르짖고 국가경제의 기초가 농업이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건국초기에 무엇보다 重農政策을 써서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모임에서 행한 강연의 일절이다.

“농촌을 길러서 부유해졌을 때 세금으로 도회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코스이다.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도 그 길을 밟지 않고 잘된 나라는 없다. 그렇게 하든가 도회가 농촌보다 더 발전하면 이번에는 도회의 세금으로 농촌을 또 건설한다. 이것이 소위 균형정치의 大道이다. … 이래서 우리 나라의 현재 형편은 우선 중농정책을 써야 할 단계이다. 우선 농민과 정부와의 유대를 맺어야 한다.” 20)

그는, 중농정책이 경제학자의 몫인 줄 알면서도, 농사가 농사꾼들의 몫인 이상 아무리 훌륭한 경제이론으로 무장된 중농정책이라 할지라도 농사꾼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당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농사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용기는 “대소의 일이란 정신으로 하는 것이지 손이나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철학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 그러기에 “정신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일

은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힘이 세어도 제대로의 성과를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사꾼들은 마지 못해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은 공장이나 회사, 상점으로 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농사꾼들을 데리고 농사일을 해 본들 중농정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중농정책에 앞서 중요한 것이 바로 농사꾼의 양성”이라고 힘써 강조하였다.²¹⁾

그가 주장하는 농사꾼의 양성은 정부나 교회 혹은 특수교육기관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농사꾼의 양성을 위해서는 영농기술과 채산성을 가르칠 뿐 아니라 농사가 최고의 직업이며 농사가 최고로 애국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농사일의 보람과 긍지를 심어줌으로 농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그가 해방 후 농업입국을 부르짖으면서 공개적으로 행한 첫 강연에서 이미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이 농사꾼 양성에 대한 그의 이념적인 기반으로서, 아마도 뒷날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게 된 사상적인 연원이 이 때 이미 출발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삼각산 농장>을 정리한 김용기는 1950년 5월 다음 계획을 위해 잠시 고향 봉안촌으로 돌아갔다. 휴식은 재창조를 위한 기회다. 그러나 그 해 발발한 민족상잔은 그의 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게 했다. 6·25 때 공산치하의 고향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그가 자신을 잡으러 온 공산군을 설득하여 보냄으로 자신에게 부딪친 위기를 어떻게 극적으로 모면할 수 있었는가는 여기서 접어두겠지만, 그런 위기를 통해서 그는 늘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앙이 더욱 깊어졌을 것은 틀림없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확인하는 신앙고백이 늘 뒤따르고 있었다.

6·25 전쟁은 전국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그와 함께 자신이 일궈놓은 봉안 이상촌과 구기리의 과수원도 모두 허무로 돌려버렸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잠시도 내가 일 않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육체를 편하게 놓아 두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²²⁾ 그는 1952년 5월부터 경기도 용인군 遠三面 沙岩里의 6만여 평에 <에덴향> 개간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때 그가 이끌고 간 사람이 27명이었는데, 그의 가족과 가산을 잃은 봉안촌 사람들, 그리고 그의 이상에 동조하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전쟁 직후,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식주가 모두 부족하였다. 이 때가 그의 개간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한다. 식기를 1, 2, 3호로 등급을 매겨 노동의 경중에 따라 식사량을 달리하여 먹었으며, 그래서 이 때 “내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일을 들자면 배고팠던 일이었다”고 언급한 그의 회상은 이 때의 힘들었던 상황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침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야 잠자리에 드는 고달픈 생활은 오히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경말씀을 실제 생활에 실천하면서 그 진리를 터득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 피땀의 노동이 직접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됨”으로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 곳에 교회당을 먼저 세우고 <복음고등농민학원>을 세웠다. 뒷날 가나안 농군학교의 전신이 구체화되어 갔던 것이다.

3년 동안 애쓴 결과 작은 부락 형태의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고, 인근 부락민 중에서 40여명의 신앙인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에덴향>은 완성시키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아마도 합작했던 분과의 의견의 불일치가 그 원인이었던 것 같지만, 그는 이 일을 통하여 개척자로서의 자신의 임무와 목표를 더욱 뚜렷이 확인하게 되었다. 그의 술회다.

“내가 평생을 두고 하려는 일의 목표가 황무지를 개간하여 그곳에서 안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곳곳의 못쓸 땅을 많이 개간하여 그 개척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나는 또 다른 데에 가 일을 찾아 해야겠다는 뜻에서 그 곳을 떠난 것이 그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3)

개척자는 한 곳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개척자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다. 순례자가 한 곳에 안주하는 것은 순례자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척자도 개척의 과실을 따 먹기 위해 한 곳에 안주하게 되면 이미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3년간 애써 가꿔온 <에덴향>을 떠나게 되는 데서, 그의 신앙인으로서의 순례의 삶이 가져야 하는 경건성과 무소유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1954년 11월 16일, 그는 용인의 <에덴향>을 떠나 경기도 廣州郡 東部面 豊山里로 옮겼다. 이에 앞서 그는 직접 답사하여 이 곳의 황무지 1만여 평을 구입하고, 새로운 개간사업으로 <가나안농장> 건설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그 동안 세 곳의 개척사업을 하였지만 <봉안 이상촌>을 제외한 두 곳은 남들의 소개로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이 곳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곳이었다. 이 때 그의 나이 43세였다.

그는 개간사업에 힘쓰는 한편 이 해 겨울부터 세 아들과 함께 4인조 악단을 만들어 농촌계몽운동에 나선다. <삼각산 농장> 시절부터 농민단체를 상대로 농경과 농촌생활에 관한 강연을 행한 적이 있고, <에덴향>에서 농민학원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험과 자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는 20여년간의 개간사업과 이상촌 운동을 통해 농촌의 衣食住 생활과 각종 儀式을 개선, 간소화할 필요를 느꼈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당시까지 농민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각종 미신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1955년부터 그는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농장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개척사업에서 강조해 온 교회당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한 그는 <가나안교회>(천막교회)를 세우고, 1만여평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용도와 연도별 작업량 및 농장 개척에 따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우선 8천평은 농토로, 2천평은 풍치림으로 만든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농토로 지정한 8천평을 1차년도인 1957년부터 4,000평, 1,500평, 1,000평, 1,000평 그리고 500평씩 각각 개간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계획에는 <5개년 연차별 개간 상황> 외에 <연차별 농작물 7대 특수 作付 상황> <보통 농작물 재배 상황> <특수 농작물 5개년 作付 상황> <흙 벽돌집 연차 건립 상황> <축산(韓牛)> <養豚> <환경정리> 등이 소상하게 나열되어 있다.24)

이렇게 개간 사업과 농촌 계몽운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개척 정신은 한국의 농촌, 농민 운동을 위해서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이 자산을 우리 국민들 특히 농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우선 전국 교회를 돌며 먼저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1956년부터 시작된 부흥회였다. 그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신앙의 생활화>와 <생활의 신앙화>를 외쳤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생활과 유리되어 신앙이 생활로 연결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말하자면 일종의 한국교회 갱신운동이었다.

그는 또 자신의 가정생활과 개간사업 그리고 영농생활 등 종합적인 자기의 삶을 현장에서 보이면서 훈련하기 위해 1962년 2월 1일부터 <가나안 농군학교>를 개교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민족주체성과 국민윤리 규범, 민주적 지도인력, 올바른 국가관, 사회관 및 가정관의 확립, 근검 절약 등을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농촌개발과 복음화운동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기독교 농촌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가 62세가 되던 1973년 3월 13일에 강원도 雉岳山 중턱인 원성군 神林面 龍岩里에 <신림동산 神林園>개간 기공식을 가졌는데, 이곳은 돌산 15만평을 개간하겠다는 것으로 그 연세에 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야심찬 사업이었다. 이어서 그 해 6월 21일에는 그 곳에 <제2 가나안 농군학교> 개교하여, 경기도 광주의 <가나안 농군학교>와 함께 수십만명의 수료자를 훈련시켜 제2, 제3의 개척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의 공적이 인정받아 각종 상과 학위를 받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김용기가 1968년에 간행한 그의 자전적인 전기이다. 자전적인 이 책에 그의 생애와 사상의 핵심이 들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가 자신의 생애의 전 과정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미가 심장하다고 생각된다. 이 표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의 생애의 목표를, 애굽에서 생활하던 히브리(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에 비유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이같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 사상’을 더듬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곧 김용기의 생애를 관통하는 그의 일관된 사상이라 할 것이다.

첫째, 그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초는 기독교 신앙이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일반의 신앙과 교리를 준수, 실천하고 장로로서 교회 생활에도 충실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범주 위에서 생활하지만, 그에게는 생활 철학면에서 기독교로부터 많은 것을 섭취하고 있다. 그는 우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서 인간이 창조 때로부터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 정복하라는 일종의 문화적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전제를 발견하고 땅을 개간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땅을 개간할 때에는 창세기 3장 17절의 근거하여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명령도 받았음을 강조한다. 여기에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데살 후 3: 10)”는 명령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적인 ‘땀의 철학’을 개발하였고 그것을 실천한 선각자다.

둘째, 그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바탕 위에 서 있다. 과거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治者들의 구호에 그쳤고, 농민이나 농업은 착취의 대상으로 또 천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용기는 농업만큼 이익이 남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야말로 가장 신성하고 긍지있는 직업이라고 하였다. 과거 실학자들 중에서 農本主義를 주창한 적이 있으나 그들 역시 자신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입으로만 그것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김용기는 개간에서 과실을 맺는 과정까지 실천해 보임으로써 농업과 농민의 ‘天下之大本’됨을 입증하였던 것이다. 그이만큼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농업에 대한 신뢰를 보인 사람은 없다고 본다.

셋째, 젊은 시절부터 고민하였고 만년에 정리된 그의 사상의 핵심은 ‘福民思想’이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사상’은 바로 이 ‘복민사상’이다. 그는 이 ‘복민사상’의 제창자요 실천자였다.²⁵⁾ 그가 자기 사상의 핵심을 드러내는 용어로서 언제부터 이 말을 사용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²⁶⁾ 그는 이 사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고심참담하여 연구를 거듭”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복민사상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억압과 빈곤 무지로부터 우리 민

죽을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것과 꿀이 흐르는 福地로 인도하겠다는 사상이며, 한마디로 백성들을 복되게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젊은 시절 꿈꾸고 실천했던 이상촌 건립의 목표이기도 했다.

넷째, 그의 사상을 실천하는 윤리의 핵심은 정직과 근면, 절제다. 이 점 역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의 개척자적 정신은 바로 이 윤리를 기초로 실천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점들을 강조한다. 그가 새벽 4시~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이나, 개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였다는 것 그리고 비누를 세 번 이상 비비지 않았다는 데서 얼마나 철저한 근면 절약을 실천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

다섯째, 그는 평생 노력의 목표를 개간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그가 황무지를 개간하는 데에 정력을 쏟아부었고 그것을 평생의 과제로 알고 일관하였다. 그의 황무지의 개간의 의미는 바로 우리 민족의 정신 개간에 직통하고 있었다. 그는 못쓰던 땅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듯이, 개간되지 않을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개간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갔던 것이다.

여섯째, 그는 과학영농을 실천한 선각자다. 과거의 농민들이 주로 경험에 근거하여 농사를 지어 왔지만, 그는 연구하여 과학적인 합리를 따지고 거기에 근거하여 기술을 개발, 터득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위주의 영농을 한 단계 넘어서서 과학영농을 실천하였다. 영농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에서도 항상 합리를 따지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졌으며, 무엇보다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저술이나 강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한국농민운동사에서 본 一家 — 맺는말을 대신하여

일가 김용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자고로 농민혁명이 성공한 예는 우리나라에는 물론 없고 전세계에서도 그 예는 아주 드물다. 東學亂이 그렇고, 洪景來의 난이 그렇고, 좀 더 올라가서 萬積의 난이 그랬다. 농민은 밀면 물러가고 누르면 들어간다. 농민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왜 농민은 힘이 없나? 역대 양반들이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두고 두고 농민들의 힘 빼기 정치만을 해 왔기 때문이다.” 27)

이 글에서 그가 세계의 농민운동사는 물론 한국의 농민운동을 어느 정도 꿰뚫어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의 저술에서 보이는 독서량으로 보아 그는 앞에서 말한 연구하는 ‘농사꾼’이 되기 위해 농민운동사도 연구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 말은 농민운동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농민운동사에서 가질 위치도 어느 정도 채고 있었을런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한국 농민운동사에서 김용기의 위치를 살펴보면, 우선 시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가 본격적으로 이상촌건립을 목표로 농민운동에 나서는 것은 1930년대 중반 1936년경으로서,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는 등 전시비상체제를 강화하던 시기였다. 말하자면 한국 농민에 대한 일제의 수탈정책이 日鮮同祖. 農工並進이란 명분 하에서 가장 심화되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고 토지소유관계를 근대화한다는 명분 아래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東洋拓植會社를 설립, 빼앗은 토지를 관리케 하면서 일본인을 이민시켰고 따라서 토지와 경작권을 빼앗긴 한국인들 중에는 만주로 이주하는 자들이 많았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작관계가 더 열악하게 전개되고 농민의 생활이 궁핍하게 되자 1920년대에 들어서서 소작관

계를 개선하기 위한 소작쟁의가 격화되었다. 압태도 소작쟁의(1923~24)와 北粟 소작쟁의(1924~25) 및 龍川 不二西鮮農場의 소작쟁의(1931~32)는 1920년대와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유명한 소작쟁의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소작쟁의를 막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1932년에 제정된 朝鮮小作調整令이다.

소작쟁의와 함께 농민들은 식민지 하에서 농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농민단체를 조직하고 협동조합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중앙의 조선노동총동맹(1924)과 지방의 소작회, 소작조합 등이 결성되었다. 1925년에는 천도교에서 朝鮮農民社를 설립하였고 이것이 1930년에는 조선농민사와 전조선농민사로 분화되었는데 여기에 비해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청년회를 통한 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오면서 농민운동이 계몽적인 성격을 다소 띠게 되었는데, 여기에 기독교와 천도교의 농민운동이 기여한 바가 컸다.

1930년대에 들어 일제는 20년대에 이미 실패한 마나 마찬가지로 제2, 제3차 産米増殖計劃을 세웠으나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고, 농촌진흥운동과 自力更生運動을 벌였으나 조선소작조정령과 朝鮮農地令(1934)의 반포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농촌이 몰락하고 기존의 농민운동은 잠적하였다. 이 무렵에 봉안 이상촌 운동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고자 나타난 것이 김용기였다. 따라서 그의 농촌운동은 일제의 전시체제 강화로 농촌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어 농민들이 신음하면서 거의 절망상태에 빠졌던 한국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북돋아주는 운동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김용기의 이상농촌운동의 성격과 계열상의 문제로서, 그의 농촌운동이 우리 나라 농촌운동의 어떤 장르에 속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일제하의 농민운동의 계열상의 문제다. 그것은 크게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과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으로 나눌 수 있고, 종교적으로는 천도교 계열과 기독교 계열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계열의 것은 주로 토지소유의 문제와 소작관계의 모순을 개혁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민족주의 계열에 속하는 기독교 계열의 농민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의 이같은 활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문맹퇴치, 농사개량, 부업장려, 농사강습회의 개최 및 농촌지도자양성기관의 설립 등에 역점을 두었다. 또 기독교의 농촌운동은 천도교의 조선농민사의 것에 비해 농촌 계몽운동과 농민야학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공동경작운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농사개량, 부업장려, 농사강습회의 개최, 농업학교 및 농촌지도자 양성기관의 설립 등은 천도교의 경우 거의 보이지 않고 기독교의 농촌운동에서만 보인다.²⁸⁾

김용기의 이상촌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의 농민운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일제하의 이상촌운동의 개념을 ‘민족적 농촌’을 뜻한다고 설명한다는 것이다. 조동걸 교수는 이상농촌운동을 두고, “어떤 농촌이 농업경제적 측면에서 비록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농촌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민족 사상을 기저로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된다.” 고 하면서, 일제의 식민성을 탈피하고 민족 자주적 처지에서 농촌경제사회를 향상시키려는 운동이 바로 이상농촌운동이라고 하였다.²⁹⁾

이런 관점과 관련시켜 본다면, 김용기의 봉안촌운동은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일제 말기에 애국지사들은 은신시킨 것이라든가 일제가 강요하는 공출을 피하기 위해 고구마 생산을 장려하였던 것은 이러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일제하 김용기의 농촌운동은, 한편으로 기독교농촌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점에서는 앞에서 말한 민족주의적인 성격만으로 그의 이상촌운동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적인 이상농촌운동이 갖지 못한 성격을 그는 갖고 있었다. 특

히 농업과 근로에 대한 이념에서 그는 철저히 기독교적인 이상을 갖고 농촌운동에 임했던 것이다.

그의 이상촌운동에는 앞에서 언급한 민족주의적인 요소 외에도 당시 기독교 농촌운동이 다소 경시한 부분을 강화한 측면도 있었다. 공동경작운동이다. 이 점은 오히려 천도교 측에서 더 강화하고 있던 부분이었지만 그의 이상촌운동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의 농촌운동은 아마도 ‘1930년대 전반기 민족운동의 한 주류였던 귀농운동’과 ‘춘천고보의 常綠會운동’ 등을 포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상촌운동에 대한 면밀한 고찰 위에서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³⁰⁾

무엇보다도 김용기의 이상촌운동이 지향하고 실천했던 황무지 개간과 농사개량 등의 과학영농은 민족주의 계열이나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종교적인 계열에서 좀처럼 보이지 않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를 한국 농민운동사에서 독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농민운동의 위치는, 앞에서 말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사상’을 비롯한 그의 농업사상의 측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 농민운동사에서 신앙과 이론과 실천력 등 세 요소를 고루 갖춘 농민운동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는 기독교적인 신앙과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농업을 하나님이 내신 천직으로 알고 거기에 몰두했던 선각자였다, 이렇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농민운동에 달려든 사람이 흔치 않다. 근대 농민운동사에서 천도교와 기독교에서 농민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고 성직자 가운데는 농업(농촌)전문가도 있었으나, 김용기 같이 세 요소를 겸비한 농민운동가는 일찍이 없었다고 본다.

과거 실학시대에 유형원, 이익, 정약용 같이 농업(농촌)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중농주의 학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근본적인 관심은 토지소유관계에 역점을 두었고, 또 근·현대의 중농주의자들도 토지소유관계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다. 거기에 비해 김용기는 주로 개간에 열중하였기 때문에 토지의 분배적 측면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농업관계 이론면에서 차별성이 보이고 있다.

또 김용기의 농민·농촌문제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농민운동가들이 취했던 농업생산력 증강면에 치중하거나 토지소유관계 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소작쟁의 문제에 역점을 둔 것보다도 또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소작쟁의 같은 문제에는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었던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김용기의 관심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었음을 유의한다면 그 차별성과 함께 김용기의 농민운동의 한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농민운동의 범주가 영농문제는 물론이고 농촌생활 전반에 걸친 이론을 창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농민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일제하의 기독교의 농민 농촌운동은 기관의 설립운동과 농민계몽운동, 농업진흥활동, 농민단체의 조직과 공동경작의 보급 그리고 농업교육을 통해 농촌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전개하고 있었다. 이런 운동과 김용기의 운동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특히 개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의 범위는 결국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꼭 지적해야 할 것은 기독교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운동을 전개하였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단지 일제하의 기독교 농촌운동이 ‘합법적이고 온건한 노선’을 표방하였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정체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용기의 운동은 철저히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사명감을 토대로 하여 전개하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간과 영농을 직접 실천하는 농민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도 다른 기독교 농민운동과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 김용기에게서 보이는 운동의 특징은 농업에 흔쾌히 종사할 농사꾼을 양성하는 일에 일찍부터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는 해방 직후부터 농사꾼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계속 歸農을 강조하였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 훈련, 양성된 훈련생은 비단 농사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각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의식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교육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 농군학교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 온 일가 김용기는 그의 기독교 신앙과 합리적인 사고와 지식, 실천적인 활동이 한국의 농촌사업, 농업경영, 농민의 계몽과 교육에 미친 공헌으로 하여, 일찍이 성자로 추앙받던 의료계의 장기려와 함께, 한국 기독교계가 배출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면서도 조용한 농민운동가로 한국의 농민운동사 및 한국 기독교사에 평가될 것이다.

1) 그의 저술에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규장문화사, 1968)을 비롯하여, 『그 분의 말씀을 따라』(創造社, 1978),

『심은 대로 거두리라』(창조사), 『참살길 여기 있다』(창조사),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창조사), 『나의 한길 60년』

(규장문화사, 1980),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규장문화사, 1982), 『조국이며 안심하라』, 『贈 젊음에게(實力行使)』,

『운명의 개척자가 되자』 등이 있고, 그와 관련된 저술들은 朴浣, 『이것이 가나안이다』(규장문화사), 李一善,

『奉安理想村』(『참살길 여기 있다』에 수록되어 있음), 그리고 가나안농군학교편, 『김용기 사상과 가나안농군학교』

(창조사, 1979) 등이 있다.

2) 車載明, 『朝鮮예수교 長老會史記』 朝鮮基督教彰文社, 1928, 94. “양주군 와부면 송촌리(용진)에서 난 邪氣病者

金婦人이 광주군 盆院教會 傳道人 卞錫鎬 등 四人의 일주간 기도와 전도로 병세가 蘇完되야 信者가

蔚興함으로 교회가 창설되야 김부인의 私邸에서 禮拜하기를 시작하니라.”

3) 차재명, 앞의 책, 195.

4) 이덕주·조이제, 『강화 기독교 100년사』(강화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 역사편찬위원회, 1994) 278~290.

5)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71.

6)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72~73.

7) 봉안이상촌에 관련, 한국사에서 학술적으로 취급한 것은 趙東杰, 『日帝下 韓國農民運動史』(한길사, 1979)

308~312에서 처음이며, 그 뒤 閔庚培가 조동걸의 저술을 이용, 「한국기독교의 농촌사회운동」(東方學志 38,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3) 202에서 간단하게 다룬 적이 있다.

8) 김용기, 앞의 책, 88.

9) 김용기, 앞의 책, 92.

- 10) 김용기, 앞의 책, 95.
- 11) 김용기, 앞의 책, 101. 이와 관련, 李一善이 쓴 「奉安理想村」에는 1935년부터 1945년까지 봉안촌의 인구와 토지의 연대별 변동과 가축과 果物의 생산력을 수치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김용기의 증언 보다는 훨씬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 김용기, 『참살길 여기 있다』 (창조사), 366.
- 12)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101.
- 13) 이일선, 앞의 책, 365.
- 14) 이일선, 『봉안이상촌』, 367~368.
- 15)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123.
- 16) 이일선, 앞의 책, 368~369.
- 17)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122.
- 18) 이일선, 앞의 책, 369.
- 19) 조동걸 교수는 『日帝下韓國農民運動史』 309에서 김용기가 농민동맹을 조직한 때를 1944년 10월 8일의 용문산 농민 회동의 시기로 보고 있으나, 김용기는 자신의 기록에서 해방 후로 잡고 있다. - 김용기, 앞의 책, 124 참조.
- 20)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167.
- 21) 김용기, 앞의 책, 168.
- 22) 김용기, 앞의 책, 169.
- 23) 김용기, 앞의 책, 213.
- 24) 朴浣 편저, 『이것이 가나안이다-김용기 장로와 가나안 농군학교』 (규장문화사) 181~185.
- 25) 이 점에 관해서는 朴浣 편저, 앞의 책, 193~242 참조.
- 26) 이 점과 관련, 1968년에 펴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이 용어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福民’이라는 말을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한 것은 그 후라고 생각된다.
- 27)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166.
- 28)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1925~193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225~226.
- 29) 趙東杰, 『日帝下 韓國農民運動史』 (한길사, 1979), 306.
- 30) 조동걸, 앞의 책, 306. 김용기의 운동은 아마도 1937년의 강원도 春川郡 新北面 泉田里의 이상촌운동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민운동(福民運動)의 등장과 영향

한 규 무 (광주대 교양학부 교수, 한국사)

1. 머리말

일제치하부터 지금까지 농민·농촌을 위해 몸바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일가(一家) 김용기(金容基) 선생¹⁾임에는 이견(異見)이 없다. 그는 널리 알려진 대로 봉안이상촌 건설부터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이같은 그의 활동을 ‘복민운동’²⁾이라 부르고 있다.

김용기와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권의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를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³⁾ 그런데 이미 나온 여러 책에서는, 1920~1930년대 활발히 벌어진 기독교농촌운동과 복민운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 봉안이상촌이 세워진 양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설명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복민운동의 출발이자 모태가 되는 봉안이상촌 건설이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기독교농촌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 공통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한다. 그럼으로써 복민운동의 등장 배경이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해방 후 삼각산농장·에덴향·가나안농장 등의 개척 및 가나안농군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지는 복민운동의 전개와 성격, 끝으로 그 발전과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2. 복민운동의 등장 배경

(1) 양주군의 사회경제적 상황

당시 대부분 농촌이 그랬듯이, 양주군의 농가상황도 ‘지주는 몰락 소작은 격증’⁴⁾으로 요약된다. 이미 이 지역은 1925~26년의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고, 1930년대 초에는 가뭄이 들어 많은 타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농촌사정은 1930년대에 들어와 급속히 나빠졌다.⁵⁾ [표2]를 보아도 그 점을 알 수 있다.

[표2] 경기도 양주군 농가상황(1931~1932)

* 자료 : 『동아일보』 1933년 3월 17일자

즉 1931~32년 사이에 지주가 226호 줄고 소작이 1,445호 늘어났다. 그 결과 지주·자작호수는 전체의 8.65%, 자작겸소작·소작호수는 전체의 91.35%를 차지하게 되었다. 심중팔구가 소작농이 된 셈이다

봉안이상촌이 세워진 와부면의 사정도 비슷했다. [표3]에 나오듯이, 1932년 이 지역에서는 자작겸소작·소작호수가 1,261호로 전체의 82.96%를 차지하고 있다.

[표3] 경기도 양주군 외부면 농가상황(1932)

* 자료 : 『동아일보』 1933년 3월 17일자

이처럼 소작농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소작쟁의도 일어났다. 1920년대 양주군에서는 소작쟁의가 거의 없었으나, 1930년대에 들어와 소작쟁의가 꾸준히 나타났다. 당시 양주군의 소작쟁의 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경기도 양주군 소작쟁의건수(1933~1936)

* 자료 : 『朝鮮小作年報』 2(조선총독부농림국, 1936) ; 『양주군지(상)』, 269쪽

이처럼 봉안이상촌이 세워질 무렵 양주군의 사회경제적 형편은, 계속되는 재해와 소작농의 급증에 따른 농촌의 피폐와 농민의 몰락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같은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농민들은 소작쟁의를 벌였다. 특히 봉안이상촌이 세워진 1935년은 이 지역 소작쟁의가 가장 많았던 때였다. 그러나 소작쟁의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통한 빈곤의 극복, 그것이 봉안이상촌의 건설이었다.⁶⁾

(2) 기독교농촌운동의 전개

김용기가 봉안이상촌을 세운 1935년은 기독교농촌운동⁷⁾의 열기가 한창 뜨거웠던 때였다. 그런데 그가 남긴 저술 어디에서도 당시의 기독교농촌운동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그의 이상촌 건설, 나아가 복민운동은 기독교농촌운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까. 사실 김용기가 기독교농촌운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던 것 같다. 기독교농촌운동에 대한 당시의 여러 자료에서, 양주군과 관련된 기록이 찾아지지 않는다. 어쩌면 양주군은 물론 봉안이상촌이 세워진 외부면 능내리가 농촌운동의 ‘사각지대’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복민운동을 기독교농촌운동과 따로 떼어서 살펴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선 농민과 농촌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김용기가 기독교농촌운동을 몰랐을리 없다. 또 그는 독실한 장로교인이었는데, 장로교농촌운동의 경우 1934년 총회농촌부 총무가 된 배민수의 활약에 힘입어 각지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김용기와 기독교를 갈라놓고 생각할 수도 없으며, 또 후술할 바와 같이 두 운동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많았다. 그러므로 복민운동이 간접적이거나 기독교농촌운동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봉안이상촌 건설에 대해 알아보겠다.⁸⁾

김용기 일가가 다닌 봉안교회에 대해, 『朝鮮예수敎長老會史記』(1928)에는 “(1911년) 楊州郡 奉安里敎會가 設立하다. 先時에 楊州松村敎人들의 熱心傳道로 設立되니라.”⁹⁾고 적혀 있다. 그러면 봉안교회가 세워지는 데 영향을 준 송촌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다음 [표5]를 살펴보자.

[표5] 양주군에 세워진 장로교회(1902~1911)

* 자료 : 『耶蘇教長老會年鑑』 (조선야소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40), 227~230쪽

이 기록을 보면 봉안교회는 1911년 2월 14일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송촌교회는 같은 와부면에 있는 교회로, 1902년에 세워졌다. 즉 와부면에는 2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봉안교회의 처음 신자는 바로 김용기 일가였다. 즉 전도를 받은 김용기의 양친 김춘교와 김공윤이 주위의 반대와 질시를 무릅쓰고 직접 흙을 파고 돌을 옮겨 교회를 지었고, 그 가족 7~8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¹⁰⁾ 따라서 봉안교회의 중심은 김용기 일가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¹¹⁾

그 뒤 봉안이상촌을 만들 때 1936년 봉안교회도 그 안으로 옮겨 새로 지었다.¹²⁾ 그러니 김용기-봉안교회-봉안이상촌은 사실상 하나였던 셈이다. 특히 신사참배·창씨개명·공출 등 일제의 요구를 거부하여 미움을 사 봉안교회에 목회자가 오지 못하자, 1939년 그는 장로가 되어 봉안교회를 이끌어나갔다.¹³⁾ 따라서 철저한 기독교인 김용기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두 교인이었던 구성원들과 함께 한 이상촌 건설은 기독교농촌운동의 일환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농촌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을 통해 복민운동 등장의 또다른 배경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1)농촌경제가 악화되면서 농촌교회가 침체되었다. 2)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과 민족주의자들의 실력양성운동의 영향이다. 3)기독교인들의 자본주의 비판과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4)기독교계 대표들의 1928년 예루살렘국제선교협의회 참석과 덴마크농촌 시찰이다.¹⁴⁾

다음으로 기독교농촌운동의 방법론을 보면, 1)합법적이고 온건한 노선을 내세웠으며, 소작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2) ‘분배개선’ 보다 ‘생산증가’ 에 역점을 두었다. 3)정신적·도덕적 각성을 중시했다. 4)덴마크농촌을 모델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협동조합과 국민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졌다. 5)미작(米作) 중심이 아닌 다각적 영농을 꾀했다. 6)사업의 순서를 문맹퇴치→단체조직→농사개량→지도자양성 등으로 설정했다.¹⁵⁾

3. 복민운동의 전개와 발전

(1) 봉안이상촌 건설(1935,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

1935년부터 10여호로써 시작된 봉안이상촌 건설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용기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굳게 뭉쳐 논농사·밭농사는 물론 과수재배, 축산 등을 통해 다각적 영농을 꾀했다. 그밖에 ‘1. 협동조합 운영 2. 소비조합 운영 3. 공제상호조합 운영 4. 농촌유년교육-탁아소 5. 농촌소년교육 6. 농촌청년교육 7. 청년회 활동-문맹퇴치’ 16) 등의 활동을 통해 의식과 생활을 개혁해 갔다.

봉안이상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김용기라는 지도적 인물과 기독교라는 정신적 구심이 있었다. 2)개간에 대한 경험과 철저한 계획, 투철한 의지가 있었다. 3)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 당시 기독교농촌운동은 대부분 각지의 농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토지도 모자랐고 갈등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촌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촌이 아니었고, 뜻을 같이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계획에 맞추어 새로 만든 것이었다. 가옥 구조와 배치도 미리 설계하여 지었고 규정도 만들었다. 즉 기존의 것을 고쳐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던 것이다.¹⁷⁾

4)10호라는 ‘소수정예’ 원칙을 지켜나갔다. 처음 이상촌에 들어온 사람들은 김용기의 일가를 비롯하여 10호 정도였다.¹⁸⁾ 그래서 봉안이상촌을 ‘십가촌(十家村)’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같은 사정은 1948년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그때 역시 ‘10여호’였다.¹⁹⁾ ‘호구가 면적에 비해 많으면 장차의 발전에 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호구수를 10가호로 정하고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심을²⁰⁾ 김용기는 지켜나갔던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지내며 뜻을 같이한 동지들이었다.²¹⁾ 따라서 그만큼 갈등의 소지가 적었다. 또 이들에게는, 비록 박토(薄土)였지만 어느 정도 토지가 있었다. 이상촌을 세울 때 김용기의 토지는 4,100평이었는데,²²⁾ 그 해 이상촌의 전체토지는 19,500평이었다.²³⁾ 따라서 그들은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살 만한 여력을 가진 자작농(自作農)-중농(中農)이었을 것이다.²⁴⁾

5)미작(米作) 중심이 아닌 다각적 영농을 꾀했다. ‘농사는 되도록 생산성이 낮은 논농사를 지양하고 세계 선진국들의 농사방식에 따를 밭농사와 과수재배를 위주로’²⁵⁾ ‘다각적 영농’²⁶⁾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용기의 생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야를 개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농지를 얻을 수 있었다.²⁷⁾

그러면 이같은 봉안이상촌 건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또다른 이상촌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자신을 얻었다. 만약 이들이 여기에만 안주했다면 이상촌이 갖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 성공했지만 폐쇄·고립된 하나의 ‘부촌(富村)’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촌이 성공을 거두자 김용기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즉 ‘장차 50호 정도를 목표로 적지를 물색’하고 있었다.²⁸⁾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려는 끝없는 의지가 있었기에 봉안이상촌 건설은 큰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얻은 자신과 경험은 이후 복민운동을 벌이는 데 값진 자산이 되었다.

2)기독교농촌운동의 명맥을 지켜나갔다. 사실 기독교농촌운동은 1937년을 고비로 점차 열기가 식어갔다. 그 이유는 ㄱ)일제가 1932년부터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것을 벌이며 다른 계열의 농민·농촌운동을 흡수하려 했다. ㄴ)교인들 사이에 농촌운동에 대한 반론이 일어났다. 특히 장로교의 경우, 교회가 현실문제-경제문제에 뛰어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ㄷ)전시체제를 강화한 일제의 탄압이 거세졌다. 그 결과 1937년 이후 장로교총회 농촌부와 감리교연회 농촌부, 그리고 YMCA와 YWCA의 농촌부가 모두 해산되었고, 사회경제적 의미의 기독교농촌운동도 거의 사라지게 된다. 비록 10여호에 지나지 않는 봉안이상촌의 경우를 갖고 기독교농촌운동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봉안이상촌이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나가다 해방후 다시 복민운동-농촌운동을 불붙여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3)김용기는 물론 이상촌 구성원들도 항일성을 잃지 않았다. 창씨개명·신사참배·공출 등을 거부하거나 애국지사를 숨겨준 활동 등은,²⁹⁾ 김용기는 물론 다른 구성원들의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기독교농촌운동에 앞장섰던 인물 중 정인파·신흥우·홍병선·김활란 등 상당수가 친일파가 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4)1930~40년대 성공을 거둔 대표적 이상촌이었다. 당시 농민운동을 벌였던 인물들은 나름대로의 이상촌-모범농촌을 세우려 애썼다. 기독교농촌운동을 벌인 각 교단·단체들도 저마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³⁰⁾ 그리고 일부 단편적인 성공사례가 찾아지기도 하지만, 그

것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점에서 봉안이상촌은, 필자가 아는 한 그 시말(始末)이 밝혀져 있는 드문 사례이다.

(2)삼각산농원 개척(1946,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기리)

김용기는 1946년 봉안이상촌을 떠나 새로이 삼각산농원을 개척했다. 이상촌은 그의 손이 필요 없을 만큼 기틀이 잡혀 있었으며,³¹⁾ ‘가꾸는 것이 내 일이지 가꾸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³²⁾ 그는 이일선 목사, 강태국 목사 등과 함께 모진 고생 끝에 황폐해진 13,000여평의 과수원을 개간하여 다시 옥토(沃土)로 바꾸어놓았다.³³⁾

삼각산농원의 개척은 봉안이상촌에서 시작된 복민운동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김용기는 김성수·조병옥·함석헌·현동완·이현필 등 인사들과 교분을 나눌 수 있었고,³⁴⁾ 시간이 나는 대로 강연과 기고(寄稿)도 했다.³⁵⁾ 그러므로써 복민운동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즉 삼각산농원에서의 활동은 복민운동 대중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자 1950년 그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여 농원을 철원의 대한수도원 유재현 목사에게 팔고 다시 이상촌으로 돌아왔다.³⁶⁾

(3)에덴향 개척(1952,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

전쟁의 와중에 폭격을 받아 봉안이상촌은 안타깝게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김용기는 여운혁·표광렬·박승복 등 청년 및³⁷⁾ 강태국 목사, 한에녹 장로, 김재국 장로 등과 함께 다시 6만평 황무지 위에 에덴향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먼저 교회를 세우고 엄격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농토를 일구었다. 이때 만들어진 ‘에덴향 생활현장’ 이 뒤에 가나안농군학교에서도 그대로 쓰이게 되는 것으로 미루어,³⁸⁾ 여기서 다듬어진 생활수칙은 앞으로의 복민운동을 위한 귀중한 지침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특기할 점은 복음농민학교의 설립이다. 이는 곧 조직적인 농민훈련을 뜻하는 것이다. 이 학교는 문을 열자 곧 60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³⁹⁾ 비록 강태국 목사와의 의견 차이로 1954년 김용기는 에덴향을 떠났지만,⁴⁰⁾ 이 학교는 뒤에 김용기가 가나안농군학교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인근 주민 40여명이 이들의 활동에 감명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4)가나안농원 건설(1954,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풍산리)

1954년 에덴향을 나온 김용기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가나안농원 개간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먼저 천막을 쳐 교회를 세우고 황무지 1만평을 일구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는 새로운 활동을 벌였으니, ‘농촌계몽유세’가 그것이다. 그는 아들 3형제와 함께 악단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은 뒤 의식과 생활의 개혁을 비롯한 농촌문제에 대해 강연을 했다. 그의 열성에 힘입어 날로 청중이 늘어났고 반응도 좋아졌다.⁴¹⁾ 아울러 천막교회에서 영농강습회도 열었다. 그는 먼저 인근 유지 50여명을 모아 1주일 동안 농사에 대한 강습을 했는데, 그 성과를 보고 그들은 직접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⁴²⁾

특히 1962년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직접 가나안농원을 방문했고, 그 뒤 전국 읍·면장 600여명, 전국 군(郡) 재건국민운동 추진회장 140명 등이 시찰하고, 경기도 국민운동본부 교육원으로 9개월 동안 장소를 대여하는 등 가나안농원의 명성이 전국에 퍼져나갔

다.43)

(5)가나안농군학교 설립(1962)

1962년 가나안농원 안에 세워진 가나안농군학교는 오늘날 복민운동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성과 또한 크다. 여기서는 15일이라는 단기간에 정신교육(전체의 2/3)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만드는 법·농산물가공법·농촌의 생활개선·황무지개척법·이상촌건설법·과수재배법·축산법·일반농업기술·모범농가창설법·음악·체육·육아법·종교학·회의진행법·민법 등 다양한 내용을 가르쳤다. 그리고 농민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별·연령·학력·직업·종교에 관계없이 뜻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 특수교육으로 나누어, 개인이나 집단에 맞는 내용을 가르쳤다.44) 그리고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시찰단·견학단이 끊이지 않았다.45)

(6)신림동산 건설(1973, 강원도 원성군 실향면 용암리)

김용기는 1973년 15만평의 황무지를 일구어 다시 신림동산을 만들었고 여기에 제2의 가나안농군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해외교포의 합숙을 위해 복민훈련관(福民訓練館)도 새로 지었다.46) 김용기가 1966년 막사이사이상을 받으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그의 명성이 알려져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 복민운동이 해외로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음을 뜻한다.

(7)가나안복민운동회(1973)와 미국 LA 가나안복민학교(1977) 설립

가나안복민운동회는 복민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벌일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미국LA 가나안복민학교는 미국에서 복민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복민운동의 성격과 영향

(1)성격

복민운동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1)개척성-김용기는 결코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개척은 나의 사명’ 47)이라 외치며 일부러 황무지만 찾아다니며 옥토로 일구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개척성은 복민운동의 가장 뚜렷한 성격이다.

2)창의성-복민운동의 각 단계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나타난다. 그 내용을 보면 ㄱ)봉안이상촌:문맹퇴치/정신계몽/생활개선/협동조합/다각적영농 ㄴ)삼각산농원:강연·기고를 통한 대중계몽 ㄷ)에덴향:생활현장 제정/복음농민학교 ㄹ)가나안농원:농촌계몽유세/영농강습회 ㅁ)가나안농군학교:농군 양성 ㅂ)신림동산:복민훈련관 ㅅ)가나안복민회:복민운동의 조직화 ㅇ)미국LA 가나안복민학교-복민운동의 국제화 등이다. 즉 한가지 활동만 벌인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며 복민운동을 발전시킨 것이다.

3)개방성-가나안농군학교 수료생을 살펴보면, 성별·연령·학력·직업은 물론 종교의 제한도 없었다. 예컨대 1968년까지 정규수료생 2,278명 중 절반 이상이 비기독교인이었고, 승려 3명을 포함해 불교 27명, 원불교 5명, 비신자 1,293명이었으며 여호와의 증인 2명, 통일교 1명도 있었다.48) 또 1980년까지 수료생 159,006명 중 개신교 24,162명, 천주교 3,840명, 불교 12,203명, 원불교 199명, 천도교 39명이었고, 종교인이 40,917명 비종교인이 117,355명이었

다.49)

김용기는 김해 봉황산 불교농도원의 초청을 받고 강연하기도 했다.50) 독실한 기독교인 김용기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벌인 것이 복민운동이었지만, 뜻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받아들였던 점에서 그 개방성을 엿볼 수 있다.

4)민족성-복민운동의 민족성은 이미 일제하에 봉안이상촌이 보여준 항일성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김용기는 복민운동이 곧 민족을 살리는 운동으로 생각하고 정열을 쏟았다. 이런 점에서 복민운동은 단순한 ‘잘살기운동’과 다르다.

5)지속성-하나의 운동으로서 대를 이어가며 60여년을 지속해 온 경우는 드물다. 이는 복민운동을 이끌어온 인물들의 탁월한 능력과 놀라운 성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분야가 많이 남아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2)기독교농촌운동과의 유사점

기독교농촌운동과 비교해 보면 복민운동의 또다른 성격이 드러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신앙을 근본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운동을 펼치며 정신적 각성을 중시했다.

2)합법적이고 온건한 노선을 내세웠다. 이는 두 운동 모두에서 소작쟁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도 짐작된다. 특히 김용기의 여러 책에서는 소작쟁의는 물론 소작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3)분배개선보다 생산증가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각적 영농에 큰 관심을 쏟았다.

4)빈농(貧農)-소작농보다는 중농(中農)-자작농을 대상으로 운동을 벌였다. 봉안이상촌의 경우가 그러했다.

5)운동을 벌인 목적 중 하나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였다. 김용기는 빈궁을 몰아내야만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51)

6)자본주의의 단점을 지적했다. 김용기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장경쟁, 그로 말미암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비판했다.52)

7)기독교의 사회구원 측면을 강조하며 현실도피적 신앙을 비판했다.53)

8)덴마크농촌, 특히 협동조합과 국민고등학교를 모델로 했다. 김용기는 덴마크를 모범적 농업국으로 소개하면서54) 국민고등학교를 높이 평가했다.55) 또 봉안이상촌에는 소비조합, 신용조합 등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9)문맹퇴치→단체조직→농사개량→지도자양성 등의 순서를 대체로 따랐다. 복민운동의 경우, 봉안이상촌 자체가 하나의 단체였고, 별도로 마을 청년들로 ‘향사회’를 만들어 문맹퇴치 활동을 펼쳤다.56) 농사개량은 새삼 이를 나위도 없으며, 복음농민학교와 가나안농군학교를 세워 농촌지도자를 길러냈다.

(3)영향

복민운동을 통한 정신적 각성과 실제적 교육은 그 끼친 바 영향이 크다. 이는 1980년까지 가나안농군학교를 거쳐간 사람들이 15만명 이상이었으며,57) 그들 중 상당수가 큰 감화를 받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점58)으로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생각과 생애가 실린 여러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막사이사이상 수상을 통해 복민운동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또 널리 알려진 대로 복민운동은 1970년대 이후 벌어진 새마을운동의 모태이자 모범이 되었

다. 그러나 복민운동과 새마을운동에는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도 있다. 김용기는 새마을운동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1)새마을운동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2)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 3)하라고 해서 하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4)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차려 일해야 한다.59) 이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매서운 질책이기도 했다.

사실 새마을운동은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거의 타율적 이루어진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다. 물론 그 운동은 분명히 필요했지만, 순수한 경제적 목적 외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경우도 없지 않다. 박대통령은 농촌에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농촌의 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못했고 오히려 부채만 늘어갔다. 김용기가 목표를 채우기 위해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물건을 수출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농수산물까지 수출하는 정책을 비판한 것도60) 그 점을 보여준다. 박대통령과 수많은 농촌의 지도자들은 근검·절약의 모습을 보였지만, 상당수의 정부관리와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가시적 성과와 허다한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새마을운동은 농촌을 살리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일 뿐, 새마을운동의 취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만일 새마을운동에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사명이 복민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복민운동의 등장과 영향을 대략 더듬어보았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이 짧고 지식이 얕아 그것이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상황은 거의 건드리지 못했다. 이를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언제나 그랬듯 농민은 지금도 위기를 맞고 있다. 위정자들은 언제나 살기 좋은 농촌의 건설을 약속했지만 경제논리-발전논리-상황논리에 밀려 여전히 농민은 도탄에 빠져 있다. 농업정책의 혼선, 유통구조의 모순, 외국농산물 개방 등은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이다. 이같은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복민운동의 방향은 무엇일까. 농촌운동사를 전공했으면서 아무런 실제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필자는 부끄러움을 감출 길 없다.

1) 김용기에 대한 책은 최근 나온 김평일 편, 『이렇게 살면 모두가 산다』(국민일보사, 1998)에 이르기까지 10여권이 있다.

이들 중 필자가 참고한 책은 다음과 같다.

김용기, 『참 살길 여기 있다』(배영사, 1965 ; 창조사, 1975)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창조사, 1968)

김용기,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창조사, 1970)

김용기, 『심은 대로 거두리라』(삼화출판사, 1973 ; 창조사, 1975)

김용기, 『그분의 말씀을 따라』(창조사, 1978)

가나안농군학교 편, 『김용기 사상과 가나안농군학교』(창조사, 1979)

김용기, 『나의 한길 60년』(규장문화사, 1980)

2) ‘복민’은 ‘복을 받는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며(『김용기 사상과 가나안농군학교』, 380쪽),

김용기는 ‘복’이란 ‘과부족(過不足)이 없는 상태’라 했다(『그분의 말씀을 따라』, 132쪽).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나안 복민대강(福民大綱)」(『김용기 사상과 가

나안농군학교』)과 「복민이란 무엇인가」(1)·(2)(『그분의 말씀을 따라』) 참조.

‘봉안이상촌 건설은 복민운동의 첫 사업이었다’ 하며(『참 살길 여기 있다』, 338쪽), 또 김용기는 ‘나는 40여년 동안 그 운동을 해온 사람’ (『그분의 말씀을 따라』, 136쪽)이라 했다. 따라서 농민과 농촌을 위한 김용기의 활동 전부를

복민운동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1970년대에서부터 쓰여진 것 같다. 필자는 1970년대 전반(前半)까지 나온 책에서 이 용어를 찾지 못했다.

다만 『나의 한길 60년』, 168쪽에서,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가 가나안농원에 오기 전에 미리 찾아온 이명준 대령에게 「복민의 실천세칙」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 책이 나온 것이 1980년이므로 김용기가 혼동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가나안복민회가 만들어진 것이 1973년인데, 그 뒤에 나온 책에서는 어째서 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지도 궁금하다.

3) 김용기의 연보(年譜)는 『김용기 사상과 가나안농군학교』 및 『나의 한길 60년』에 실려 있다. 이와 관련,

『나의 한길 60년』에는 「가나안 개척약사(略史)」가 실려 있는데, 이는 곧 복민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가나안 개척약사(1935~1980)

4) 『동아일보』 1933년 3월 17일자.

5) 『楊州郡誌(上)』(양주문화원, 1992), 250쪽.

6) 왜 김용기와 봉안이상촌의 구성원들은 소작쟁의를 벌이지 않았을까. 이는 기독교농촌운동 부분에서 언급될 것이지만,

과연 그들이 소작농이었는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용기는 물론 소작농이 아니었고, 다른 이들도 그랬던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7)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농민운동’ 대신 ‘농촌운동’이라는 표현을 썼다. 기독교농촌운동에 대해서는 拙著,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참조.

8) 1920년대 말 양주군의 기독교 교세를 보면, 교회 20개 교역자 88명 신도수 800여명이었다(『양주군지(上)』, 248쪽).

9) 차재명 편,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조선키독교창문사, 1928), 195쪽.

10) 이일선, 『이상촌 (1948)』; 『참 살길 여기 있다』, 390~391쪽.

11) 그런데 봉안교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일선은 1948년 나온 『이상촌』에서, 34년 전 경기도 광주군

분원교회의 감리교 속장 함씨가 전도를 해서 김용기 양친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다(『참 살길 여기 있다』,

390~391쪽). 만약 1948년을 기준으로 해서 34년 전이라면 1914년이 된다. 또 김용기는, 그가 3살 때 마을에 온

전도인에게 전도지를 받은 부친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다(『가나안으로 가는 길』, 24쪽). 1912년생인 그가

3살 때라면 역시 1914년이 되며, 「김용기연보」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김용기 사상과 가나안농군학교』, 410쪽).

이같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김용기 일가가 봉안교회의 주축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12) 『참 살길 여기 있다』, 358, 389쪽.

13) 『나의 한길 60년』, 44쪽.

14) 拙著,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29~55쪽.

15) 拙著,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91~104쪽. 이들 내용이 복민운동과 어떻게 유사한지는 4장에서 살펴보겠다.

16) 『나의 한길 60년』, 40~41쪽.

17) 『가나안으로 가는 길』, 98쪽.

18) 『가나안으로 가는 길』, 97쪽.

19) 『참 살길 여기 있다』, 358쪽.

20) 『가나안으로 가는 길』, 97쪽.

21) 이들은 여운혁·김재홍·김수상·이인준·최광열 형제 등으로, 모두 기독교인이었다(『나의 한길 60년』, 37쪽).

처음 이상촌의 구성원은 남자 24명, 여자 16명이었다(『참 살길 여기 있다』, 366쪽).

22) 『가나안으로 가는 길』, 96쪽.

23) 『참 살길 여기 있다』, 366쪽.

24) 김용기 역시 ‘논 15두락, 밭 2천8백평의 중농’ 집안 출신이었다(『김용기 사상과 가나안농군학교』, 410쪽).

25) 『가나안으로 가는 길』, 98쪽.

26) 『나의 한길 60년』, 95쪽.

27) 이상촌의 토지를 보면, 1935년에는 논 6,500평, 밭 9,000평이었고 과수원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 뒤 과수원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1945년에는 논 16,500평, 밭 25,226평, 과수원 23,546평으로, 전체 토지의 35.7%가 과수원이었다. 이것은 대부분 임야를 개간한 것이었다.(『참 살길 여기 있다』, 366쪽). 또 전체 토지는 1935년 19,500평이던 것이 1945년에는 65,972평으로 228%가 늘어났다.

28) 『참 살길 여기 있다』, 358쪽.

29) 김용기를 비롯한 봉안이상촌 구성원들의 항일성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일본의 강제 창씨제도에도

끝끝내 항쟁한 김용기씨 이하 몇 사람은 8·15 해방기를 자기의 성명을 가진대로 맞이하였으며, 학병제도로 인하여

취학 중 거부하고 도주한 6~7인의 청년을 촌에서 숨겨주고 보호하여 8·15에 이르렀고, 징병연령 해당자인 5인을 정신 이상으로 가장케 한 후 도주시켜 서울 동지의 집에 숨겨 보호하여 8·15까지 이르렀으며, 징용 해당자를 이 촌에 받아들여 농업에 종사케 하여 보호하였고, 1944년 10월 8일에는 양평 용문산에 각 군의 대표를 소집하여 공출 반대, 징병·징용 불응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었다.…민족해방운동을 하다 체포되었다가 경성

종로서에서 탈출한 전군도 광주 동지가에 보호케 하다가 8·15 해방까지 이른 것이다. 만주에서 활약하던 동지 박모 중위는 병으로 가장하고 요양차라는 명목으로 이 촌에 와서 유하며 장래 조선국군에 대한 편성계획과 만주내의 조선인 장교·병졸로 조직된 조선인 부대로

서 항일투쟁에 적극적 행동할 것으로 상의하고 진력하였다(이일선, 『이상촌』; 『참 살길 여기 있다』, 367~368쪽).”

30) 기독교이상촌 건설의 선구자이자 대표자는 조민형이다. 그는 1924년 경기도 김포군 군내면 걸포리에 이상촌을

만들었고, 이것은 1927년 걸포리산업저축계로 발전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한규무, 「1920년대 조민형의 기독교 농촌운동과 조선농촌구제책」, 『술내민경배교수환갑기념 한국교회사논총』, 간행위원회, 1994 참조).

그러나 1940년 이후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YMCA에서는 연희전문학교로부터 1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시범농장을 운영했고(유광열, 「정말을 본뜨려는 국민학교와 자작농 전형」,

『실행활』 1932년 9월호, 7~8쪽), 장로교계열의 숭실전문학교에서도 120만평의 모범농장을 조성했다(『농민생활』 1935년 4월호 광고). 그러나 그 구체적 성과는 알려져 있지 않아 봉안이상촌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장로교농촌운동의 지도자 배민수는 다음과 같은 이상촌을 꿈꾸었다.

“약 1백여호의 농촌을 단위로 하고, 각 농가에서 약 5~6천평의 토지로 자작하고, 부업을 장려하며 소비·신용·구매 及 이용조합을 조직하여서, 경제적 시설이 원만하여서 매호 年産 6백원가량 수입이 되고, 전 동민이 교회에 참석하여 신실한 신자가 되고, 자녀교육기관이 완비되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목욕탕·이발소·상점 급 일반 사회적 시설이 경제적 균형을 형성하여, 전체가 一人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一人이 전체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일반민중의 생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어...(배민수, 「기독교농촌운동의 지도원리」, 『기독교보』 1936년 1월 21일자)”

비록 그 규모는 1:10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호당 약 5~6천평 토지의 경작, 전 주민들의 신자화, 자녀교육의 완비 등이라는 점에서 봉안이상촌과 비슷하다. 배민수의 이같은 생각은 이상으로 그쳤지만, 김용기는 실현에 옮겼던 것이다.

31) 『나의 한길 60년』, 87쪽.

32) 『김용기 사상과 가나안농군학교』, 78쪽.

33) 『나의 한길 60년』, 112쪽.

34) 『가나안으로 가는 길』, 148쪽.

35) 『나의 한길 60년』, 88쪽.

36) 『가나안으로 가는 길』, 170~171쪽.

37) 이 때 인원에 대해 『김용기 사상과 가나안농군학교』, 82쪽에서는 27명, 『나의 한길 60년』, 112쪽에서는 40여명이라 하여 다소 차이가 난다.

38) 『나의 한길 60년』, 117쪽.

39) 복음농민학교의 조직을 보면, 재단이사 현동완·유준호·오근영, 교사로 영어·수학 차두형, 역사·기타 박대혁 목사, 최진호 목사, 서효근 집사, 김용기, 교무 표광렬, 서무 여운혁 등이었다(『나의 한길 60년』, 114쪽).

40) 김용기는 복음농민학교를 농민대학으로 만들려 했고, 강태국은 신학대학으로 만들자고 했다

- (『나의 한길 60년』, 204~213쪽).
- 41) 『가나안으로 가는 길』 216~221쪽.
 - 42) 『가나안으로 가는 길』, 234~247쪽.
 - 43) 『나의 한길 60년』, 158~159쪽.
 - 44) 『가나안으로 가는 길』, 282~283쪽.
 - 45) 『나의 한길 60년』, 165쪽.
 - 46) 『나의 한길 60년』, 210쪽.
 - 47) 『나의 한길 60년』, 97쪽.
 - 48) 『가나안으로 가는 길』, 282~283쪽.
 - 49) 『나의 한길 60년』, 210쪽.
 - 50) 『김용기 사상과 가나안농군학교』 415쪽.
 - 51)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297쪽.
 - 52) 『참 살길 여기 있다』, 26~31쪽.
 - 53) 『그분의 말씀을 따라』, 128쪽.
 - 54) 『심은 대로 거두리라』, 36쪽.
 - 55)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133쪽.
 - 56) 『나의 한길 60년』, 40~41쪽.
 - 57) 『나의 한길 60년』, 209쪽.
 - 58) 『가나안으로 가는 길』, 286~298쪽.
 - 59) 『나의 한길 60년』, 234~239쪽.
 - 60)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250쪽.

국난극복을 위한 一家 김용기 장로의 생애史

김 기 석 (서울대학교 교수)

1. 서론

일가 김용기 장로는 전 생애를 통해 우리 국가와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향하여 온몸을 던져 싸우며 일생을 보냈다. 그가 국난극복의 생애사를 살 수 있는 원동력은 그의 특이한 인품과 지도력이다. 그의 실천적 삶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의 인품과 지도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일가의 지도력은 곧 그의 생애사의 반영이다.

그의 생애사는, 단순한 개인의 생애사가 아니라, 개항 이후 전개된 고난에 찬 우리 민족의 역사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인물 됴됨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사를 반추하여야 하며 또 그의 생애사를 근대 한국사가 걸어온 가시밭길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일가의 가르침을 그의 인물과 생애 그리고 식민지 폭정 이래 지속된 고난에 찬 한국 현대사와 관련시켜서 찾고자 한다.

필자의 궁극적 관심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우리 국가와 민족의 참 살길을 다시 찾는 데 궁극적 관심이 있고, 그 실마리를 일가 선생이 남겨준 교훈에서 찾고자 한다. 일가 선생의 유훈은 그 생애 전체를 통해 추구한 주제에 남겨 있으므로 그간 남긴 말씀과 언행 그 자체에 관심을 국한하지 않고 그 말씀과 실천의 뿌리가 되는 그의 생애를 ‘오늘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극복’이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일가의 인격 형성

한 인물의 인품과 지도력은 부분적으로는 타고난 부분도 있으나 많은 부분은, 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그가 직면한 현실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가운데 학습되거나 획득한 부분도 있다. 이 점은 지난 20세기를 풍미한 영웅호걸이나 위대한 인물이 모두 그렇고 또한 일가 선생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 무관하게 수동적으로 주어진 ‘타고난’ 역량과 자신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획득하는 ‘만들어낸’ 역량을 분석적 수준에서 구분하는 것은 큰 인물의 인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간 학계에서 지도력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사회심리학 분야의 학자들은 특성이론(Trait theory)을 발전시키었다. 이 이론은 위대한 인물의 성격 특성을 찾아내는 데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 특징 그 자체가 ‘타고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심층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만일 위대한 인물의 지도력이, 마치 성격 특성처럼, ‘타고난’ 것이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나 일반 대중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인물-즉 구원자-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평범한 인물 가운데 그와 같은 인물을 ‘만들어’ 내는 방안의 제시에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다.

‘타고난’ 역량과 ‘만들어낸’ 역량의 구분 그리고 두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탁

월한 지도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생애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일가 선생의 인품과 지도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일가 선생의 인물 됨됨 그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나, 궁극적으로는 그의 정신을 계승할 후세대 인물의 지속적인 재현과 재창조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인물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당면하게 된 가혹한 도전에 대해 당당하게 응전의 길을 찾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일가 선생은 남다른 투시력과 판단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은 배운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으로 비추어진다. 이 점 자녀이자 동지이기도 한 후손에게 알려진 그의 능력의 근원은 ‘學而之知가 아니라 生而之知인 특별한 존재’이었다. 실지로 일가는 소위 근대 교육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였다. 식민지 중반까지 끈질기게 남아 있던 전통 교육의 한 형태인 家學 또는 私塾에서 유학 공부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르게 내세울 학력이 별로 없다. 현 양주군 조안면 소재 조안초등학교를 마치었고, 몽양이 봉안 지역에 설립 운영한 민간 사학인 광동학교를 다녔을 정도이다. 그를 ‘형님’처럼 따르는 기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일가는 조선신학교를 다닌 바도 없다. 해외에 유학하여 신학을 배운 바는 더더구나 없다. 일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교육이나 외국 유학에 대해 상당 정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가가 자신을 뜻을 일으켜 ‘봉안 이상촌’ 건설에 매진한 시기인 30년대의 근대 공교육이란 실상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이었다.

당시 근대적 중등 및 고등교육은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사상통제 장치였다. 식민지 교육 현실을 고려하면 공교육에 대한 일가의 그와 같은 부정적 사고는 당시 민족정신이 강한 독립운동 지도자 사이에는 널리 퍼져 있었던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가 자신도 식민지 체제 근대 교육을 멀리하였고 심지어 자녀들의 교육기회 또한 엄격하게 통제하여 자녀들에게 많은 ‘한’을 남겨 놓았다.

이처럼 학교에서 특별히 배운 바는 없으나 그가 소지한 지식의 깊이와 폭은 경이로운 것으로 가히 ‘생이지지’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예컨대 독창적인 성서 해석이 그렇다. 제자들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므로 다음 세 가지만 예시하여 그의 생이지지의 단면을 살펴보자.

일가는 ‘타고난’ 효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실천한 효를 기독교 정신과 접목시켜 독특한 토착신학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실지로 이후 일부 신학자들은 효의 신학을 교리화 하려 시도한 바도 있다. 기독교 교리와 전통 유학의 핵심 덕목인 효의 결합은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다. 다 알듯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제자에게 어머니를 돌보아 드릴 것을 당부한다. 일가는 이 사건을 ‘양자 수속’으로 보았다. 젊은 예수는 부모 먼저 죽게 되는 자신의 부덕을 용서받고자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양자로 입양시키어 이후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을 당부하였다고 해석한 것이다.

일가는 이 대목에서 조선인의 아름다운 요소와 기독교의 교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후 일가는 부모에 대한 효는 곧 바로 예수를 닮는 것 중에 중요 요소임을 널리 가르쳤다. 예수의 마음에서 효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신학만으로는 또는 서구에서 회자되는 외국의 신학이론으로는 불가능하다.

일가는 ‘타고난’ 농사꾼이다. 그가 전 생애를 통해 혐오한 것은 불한당과 같은 류의 사람

들이다. 자신도 매우 부지런하게 일하였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노동이 중요한 삶의 한 형식이며 참 인간 됨의 요소라는 일가의 일관된 교훈은 그가 창작한 구호-음식 한 끼에 4시간씩 일하고 먹자 - 에 잘 나타나 있다. 실은 이 구호는 일가의 창작이 아니라 일종의 모작이다. 일가 자신이 고백한 대로 그 구호의 원전은 성경에 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가 그것이다. 일가는 바울 선생 자신도 천막을 짜는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도 노동자였다고 가르치셨다.

그의 독특한 성서 해석은 ‘예수의 못 자국론’에 잘 나타나 있다. 일가 선생은 “예수의 손에는 두 개의 못 자국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대목은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그의 해석은 매우 논리적이다. 로마 군병이 예수의 손에 못을 박았으니 응당 그의 손에는 못 자국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두 번째 못 자국이다. 일가는 예수가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따라 가업으로 목수 일에 종사하였다고 믿었다. 목수 일을 하면 누구나 그의 손에는 못 자국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손에 있는 두 번째 못 자국이다. 물론 병사들이 못을 박을 때의 ‘못 자국’과 목수일 할 때 생기는 ‘못 자국’은 다르다. 다만 우리 언어 생활의 오묘함에서 두 가지가 같은 발음을 하게 되는 것뿐이다. 그러나 다른 부흥사조차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언어의 오묘함을 능숙히 구사하며 노동과 기독교 교리를 결합시킨 것이다.

일가는 두 개의 ‘못 자국’을 추리한 것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담한 주장에 이른다. 즉, 구세주 예수도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했으니 그를 따르려는 사람, 또 그의 생애를 모범으로 삼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손에 못이 박힐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은 인간의 도리이다.

노동과 기독교 교리의 접합은 어느 사회 사학자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탁견이다. 일찍이 외국의 사회 경제 사학자들은 왜 서양 사회 특정국가에서 자본주의 산업화가 먼저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동양 사회의 뒤늦은 자본주의 산업화를 그러한 근대적(실은 서양적) 요소의 결핍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였다. 예컨대, 산업화 과정에서 돌출된 노동자들의 비참한 비인간적 삶의 고통에 公憤을 느낀 한 경제사학자는 노동자에 대한 수탈과 착취와 같은 경제적 요소에서 산업화의 기원을 찾기도 하였다. 비경제적 요소에 주목한 다른 사회 경제 사학자는 청교도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간의 ‘선택적 친화력’에서 변영의 기원을 찾기도 하였다.¹⁾

요컨대, 개신교의 한 특정 요소는 자본주의 산업화에 요구되는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물질적 변영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학자 누구도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예수의 생애와 특히 그의 손에 박힌 ‘못 자국’에서 공업화에 필수적인 노동윤리와 그 결실로서의 산업의 발전과 변영을 접합시킨 상상력을 동원한 학자는 없다. 그러나 유학적 교양으로 독학으로 자습하고 이어 제한된 중등 수준의 근대 교육만을 접한 일가 선생은 예수의 삶과 이후 한 나라의 변영과 부를 연결시킨 것이다.

일가의 논지는 간결 명료하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또한 그의 육신생활을 위해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을 하였다. 그런즉 그를 따르고자 하는 이는 누구든지, 영적인 구원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세속 삶에서 열심히 일해야 육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지는 일가 특유의 ‘영육생활 부흥회’의 기본 주제였다. 일가에게 있어 ‘영’(예, 성령)과 ‘육’(예, 일상생활)이 분리된 상태에서의 구원 추구는 비성서

적이며 따라서 허구이다. ‘영육의 일치’는 실상 일가 생애 전체를 꿰뚫는 주제이다. 대표적인 예가 선생이 1966년 아시아 지역 노벨상이라 알려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 할 당시 인구에 회자된 구호이다. 즉,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호미”가 그것이다. 또는 ‘신앙의 생활화와 생활의 신앙화’와 같은 교훈이 그것이다.

실지로 선생이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부흥회를 개최할 때, 영적 구원에 지나치게 천착한 나머지 세속 생활에서의 책임을 망각하는 잘못된 신앙 관행을, 일일이 구체적 예시를 들어가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자신의 선호와 관계없이,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 - 즉, 부모로서, 부부로서, 자녀로서, 지도자와 국민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등등- 에 충실하는 것이 참다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교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가르침 때문에 선생은 개신교 내에서 전국 제일의 ‘부흥사’였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타 종교 단체는 물론 국가기구나 민간 단체에까지 광범위하게 초청받아 ‘참 살길’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다. 일가의 독창적 성서 해석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반복된 새벽 기도를 통한 끊임없는 영적 교섭과 중단 없이 지속된 성경공부를 통해서 획득한 것이다.

일가는 ‘타고난’ 애국자이다. 그의 애국심은 안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어떤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갖게 된 마음이 아니다. 한국 현대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려면 일정한 자격, 면허 또는 학력이나 그것에 기반을 둔 학연이 필요하다. 한국 근대교육이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가 학력사회로 변모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려면 전문가로서 자격과 학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일가는 그 어느것도 없이 지도력을 행사하였다. 그에게는 심지어 지연도 없다. 그의 애국심은 자신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다. 몽양이나 백범처럼 해방 전후 독립운동을 이끈 몇몇 분의, 최근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우국지사’ 마지막 대열에 선 인물이다. 다른 지사형 인물과 차이가 나는 점은, 일가의 애국심의 뿌리는 기독교 복음이라는 점이다. 선생은 자신이 실천한 모든 일의 근거를 성서에서 찾았다. 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3-16)가 그것이다. 여기서 ‘그 나라’는 물론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나 일가에서 있어 신국의 뿌리는 한반도에 선 민족국가이다. 일제의 침략으로 민족국가의 형태와 내용이 심하게 왜곡되자 그는 안일한 사적 개인적 삶을 포기하고 조국 독립이란 국가적 공적 책임에 우선 순위를 두어 살았다. 또 선생 특유의 신앙과 신학인 ‘영육일치론’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건설이란 지상의 목표는 땅의 나라 조국의 건설이란 과제 수행을 경유하여 달성된다.

일가가 뜻을 세워 개척사를 창조할 초창기 조국은 피식민 지배국가였으며, 이후 그 국가는 오랫동안 가난한 나라였으며 동시에 분단된 나라이었다. 30년대 말 청년 일가의 초기 목표인 “조국이여 안심하라”를 실천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의 극복이었으며, 또 빈곤해방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분단의 극복이었다. 실지로 일가는 식민지 지배로부터 민족독립에 투신하였고, 빈곤 해방을 위해 전력투구하였으며,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분단의 극복에 헌신하였다. 특히 그의 생애 말년에 정립하고자 한 복민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초극하여 제 3의 이념아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시도였다.

이상 세 가지 사례에서처럼, 일가는 남달리 ‘타고난’ 능력을 소지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 능력은 끊임없는 신앙 생활을 통해 성서적 근거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식민지 폭정과 빈곤이란 현실을 타개하려는 일련의 실천을 통해 일가 특유의 지도력과 복민주의를 만들어 낸 것

이다. 이처럼 일가의 인품과 지도력은 ‘타고난’ 역량과 고난에 찬 민족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역량의 통일체이다.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일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만들어낸’ 역량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당 정도 후학이 모방할 수 있는 요소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하 일가의 지도력 가운데 ‘만들어낸’ 역량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자. 일가가 이끈 개척사 60년에서 주목할 시기는 초창기 봉안이상촌 건설 시기와 60년대 초 가나안농장 개척 시기이다. 이 두 시기는 일가가 전 생애를 통해 추구한 빈곤해방운동이 비교적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시기이다. 이하 이 글에서는 이 두 시기에 국한하여, 일가 선생은 어떻게 자신의 지도역량을 창조해갔는지를 살펴보자.

3. 일가의 빈곤해방운동: 봉안과 가나안

일가에게 있어 인류 제 1의 공적은 가난이다. 이 가난은 물질의 가난과 정신의 가난을 모두 포함한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하나의 실체로서 두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일가는 얼핏 두 가지 다른 실체로 보이는 이 가난의 두 측면을 동시에 척결하기 위해 ‘영육일치론’을 제시하며 빈곤해방운동에 앞장섰다. 가난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간의 비인간화를 초래하고 억압되고 왜곡된 삶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가는 전 생애를 걸쳐 인류 제 1의 공적인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며 싸워나갔다. 가난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실체이다. 그것은 특정한 역사사회적 현실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마다 가난의 발생 동인은 다르다. 빈곤해방운동은 따라서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에서 전개된다. 일가의 빈곤해방운동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들어낸 시기는 1930년 말 봉안이상촌 건설 시기이며, 특징을 가장 잘 보인 시기는 50년대 말 60년대 초 경기도 광주군 황산에서 시작된 가나안농장 개척 시기이다. 이하 각 시기별 빈곤해방운동의 기원과 전개를 살펴보자.

1) 일제 식민지 수탈과 이상촌 건설운동

1905년 乙巳勒約으로 침략을 시작한 이래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원래의 폭압적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인 시기는 30년대 이른바 ‘민족말살정책’의 강제 시기이다. 후세 사가들에 의하면 민족말살 정책은 다음 세 가지 수준에서 강제되었다. 먼저 식민지 경제수탈체제가 확립되어 농민의 궁핍화가 가속되었다. 물질 수탈에 이어, 민족정신을 그 뿌리부터 없애려는 폭압적 장치가 확립되었다. 수탈과 민족정신 말살에도 불구하고 반제 반일 독립운동이 끊이지 않자, 독립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사상적 물리적 파괴 공작이 자행되었다. 나이 스물 전후의 청년 일가는 이 폭압적 시기 고향 마을 봉안에서 몇몇 동지들과 함께 이상촌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상촌 건설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였는지는 이미 이일선 목사의 관찰기에 자세히 논급되었으므로 반복을 피한다.2) 다만 일가의 이상촌 건설 구상은 같은 시기 일제의 민족말살책략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 등장된 점만 언급하겠다.

일제는 이 시기 소위 ‘식량증산정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하였다. 소위 근대적 농업 경영이 도입되었고 품종 개량, 토지 개량, 수리시설 개량, 및 화학비료의 보급 등이 이루어졌다. 얼핏, 당시 식량증산을 위해 일제 지배자들이 취한 여러 조치는 마치 한국 농업의 근대화를

위한 조치인 듯 보인다. 최근 외국의 사학자들에 의해 촉발되어 느닷없이 재등장한,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에 따르면 식량증산 정책으로 식민지 농업경제 체제 아래서도 한국 농업은 일정 정도 ‘근대화’되어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어 식량증산이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이후 60년대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이 시기에 조성하였다는 것이다.³⁾ 그러나 식민 지배 세력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식량증산과 궤를 같이하여 나타난 조선 농민-특히 자작농, 소농, 소작농 및 농업 노동자들의 궁핍화 농촌사회 분해 현상이다. 또한 이 시기 식량증산정책의 등장하게된 원인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30년대 일본의 자본주의 산업경제는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전환되며 동시에 유럽의 파시즘과 나치즘에 상응하는 군국주의가 등장한다. 독점 자본주의 등장의 전제 조건은 대규모 저임금 노동자의 확보이다. 동시에 군국주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전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 단계 자본주의는 수탈과 억압으로는 유지될 수 없고 고도의 이데올로기 조작을 통한 국민적 ‘동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헤게모니에 의해 유지된다. 대규모 저임금 노동자의 확보와 그들로부터의 지지 획득이란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헤게모니인 것이다. 이 헤게모니는 시기만 다를 뿐, 이태리에서는 파시즘으로 독일에서는 나치즘으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천황제군국주의로 나타났다.

일제는 본국의 군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양질의 쌀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양질의 미곡을 저렴하게 확보하려는 일본 본토의 독점자본주의 체제 유지 논리는 곧 이어 식민지 조선에서의 식량증산정책으로 이어졌다. 증대된 농업 생산량에 따라 증산된 미곡을 저렴하게 확보하는 방안이 식민지 전 지역에서 실시된 低米價정책이다. 식량증산정책과 저미가정책은 표리를 이루는 식민지 수탈 정책이었다. 미곡 가격 결정의 통제권을 장악한 식민지 지배자들은 생산비 보다 낮게 쌀값을 정하였다. 결국 대지주를 제외한 조선의 농민 대부분은 자금자족 이하의 상태에서 쌀 농사에 종사하게 되어 궁핍화는 가속된 것이다. 다 알 듯이, 이후 일제가 전쟁에 돌입하자 쌀을 비롯한 식량을 ‘공출’ 형태로 약탈하였다. 이 시기 조선의 빈곤은 이중적 특징을 지닌 식량증산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즉, 식민지 수탈로 빈곤이 가속화 된 것이다.

봉안이상촌 건설 이래 일가 선생 생존시까지 이어진 60여 년의 개척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일관되게 황무지개간사업을 수행한 점이다. 어느 시점에도 쌀 농사와 식량의 자급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않았으나 일가와 그 동지는 지속적으로 황무지 개간에 주력하였다. 쌀 농사 대신 고구마 농사를 지어 그것을 대용 식량으로 삼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탐색하게 되면 이상촌 건설사업과 당시 민족말살정책과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된다. 고구마는 쌀과 달리 어떤 조치를 가하지 않는 한 썩는다. 일제는 보존이 불가능한 고구마를 약탈할 수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곡증산정책 그 자체가 식민지 수탈의 동인이므로 쌀 농사는 그 자체가 식민지 수탈체제로의 포섭을 뜻한다. 요컨대, 봉안 지역에서의 황무지 개간은 일제의 미곡중심 농업정책에 대한 반대이며 수탈체제의 포섭 책략에 대한 저항이었다. 일가의 독창적 창작품은 고구마 12개월 저장법이다. 고구마를 쌀 대신 식량으로 삼기 위해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민의 자구책이자 생존전략인 것이다. 일가와 그 동지들의 황무지 개간 사업은 30년대 민족말살 정책의 중심인 식량증

산정책을 피해가며 민족 자존심을 잃지 않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농민운동이었다.

민족말살정책의 폭력적 성격은 물질 수탈에 끝이지 않고 민족의식과 민족문화의 말살을 획책하는데서 드러난다. 이 시기 소위 식민사관이 등장한다. 우리 민족 역사의 추동력 자체를 부정하는 소위 停滯論 시각에서 조선사가 기술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고종무능설’이다. 구래 동아시아 봉건 질서에서 탈피하기 위해 1897년 제국을 선포한 고종을 폄하하기 위하여 ‘암약설’과 ‘무능설’을 주장하였다.4) 특히, 1905년 강제된 을사늑약을 국제법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한 고종의 업적과 능력을 위시하여 고종조 역사를 체계적으로 왜곡하였다. 대원군과 민비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국왕의 국정개혁능력을 악의를 가지고 축소하여 왕을 마치 아버지와 부인 사이를 오락가락한 ‘쪼다’인 양 기술하는 데 성공하였다.

역사 왜곡은 조선어 사용 금지로 이어진다. 학교에서 일어가 ‘국어’로 둔갑하였으며 공공영역에서 조선어 사용 자체가 금지되었다. 이후 세계 어느 피식민지국가에서 볼 수 없는 정신적 파괴 공작이 추가되었다. 창씨 개명과 신사참배가 그것이다. 이러한 민족문화와 의식의 파괴 공작에 맞서 일가와 그의 동지는 온 몸으로 저항하였다. 일가의 고집스런 민족의식 탓에 창씨와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 그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되고 마음에 깊은 ‘한’을 남기게 되었다. 당시 기독교 중에서도 천주교와, 고신과 장로교를 제외한, 개신교 대부분도 신사에 참배하였다. 30세를 전후 젊은 장로 일가는 기독교계 전반에 편재된 그러한 시류를 홀로 거부하고 신조를 지키었다. 일제 협력을 거부한 일가의 그러한 단호한 입장은 이후 그를 ‘독선적’ 인물로 부각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식량 수탈과 의식 파괴에 이어, 일제 침략자들은 독립운동에 참가한 지도자나 추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격을 파괴시키려는 비인도적 반인류적 행패를 자행하였다. 30년대 등장한 ‘사상범 보호 관찰령’ ‘예비구금법’과 고등계 형사제의 시행은 온갖 회유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지도자들을 체포, 구금, 고문하였다.

독립운동지도자의 서울 체류를 금하는 疏開 조치도 이루어졌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몽양이 봉안 지역에 체재하게 되었고 이 시기 일가는 몽양과 여러 형태의 교유를 맺게 된다. 일가는 몽양이 비밀리에 조직한 건국동맹의 한 분파로 결성된 농민동맹의 양주지역 조직책을 맡게 된다. 봉안이상촌은 황무지개척의 현장이자 동시에 독립운동의 비밀 아지트였다. 일가에 미친 몽양의 영향은 그 깊이와 폭을 헤아릴 수 없다. 작게는 조선 최고의 대중 연설가인 몽양으로부터 청중의 피를 끓게 하는 대중연설 기법을 체득하게 된다.5) 크게는 그의 민족주의 사상을 이어받기도 하였다.

특히 좌나 우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오로지 민족의 공익을 위해 산업발전과 사회개혁을 추진하려는 역량을 배우기도 하였다. 일가가 나중에 정립한 복민주주의의 골자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짐이 없이, 양 체제의 장점을 확보하여 민족 번영의 길을 찾자는 것이다. 이 기본 입장은 실상 몽양이 해방 전후 일관되게 견지한 ‘좌우합작운동’의 새로운 해석인 것이다. 일가가 보수 신앙을 견지하면서도 일상 생활과 사회문제에서 상당한 정도의 진보적 요소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몽양과의 만남이 초래한 결과이다.

30년대 봉안이상촌 건설 개척 사업은 실상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대한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대응이었다. 일가는 식민지 수탈체제에 포섭되기를 거부하고 여러 형태의 탄압을 받으면

서도 민족의식을 견지하였으며 반제 반일 운동지도자에 대한 교활한 탄압의 틈새 속에서 오히려 몽양의 뒤를 이을 후 세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획득하고 있었다. 일제의 탄압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그것에 온 몸을 던져 저항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일가 특유의 인품과 지도자적 자질을 형성하였다.

일가의 인품은 ‘타고난’ 것만큼, 실은 더 이상,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특히 후자는 일제 식민지 폭정의 구체적 내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가 개척사의 초기에 획득한 자질과 능력은 이후 급변하는 한국 현대사의 전개 가운데 거의 변하지 않고 이어졌다. 해방 직후 격변하는 정치판도에 실망한 일가는, 특히 몽양을 잃은 다음의 일가는, 현실 정치와 일정 거리를 두고 농촌에 몸을 묻고 묵묵히 농촌의 살길과 영육생활 부흥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때가 되면 지도자를 찾게 되고 그의 지도력이 다시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는 바로, 한 때 세계가 경이적인 눈으로 보았던 경제발전의 시기였으며 개척사는 가나안농장과 농군학교 건설로 진행될 시기이다.

2) 가나안 정신과 국력신장

작년 IMF체제가 덮쳐 오기 전까지 한국 경제는 마치 ‘육일승천’ 하는 듯 팽창하였다. 24번째로 OECD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체계나 정계 일부에서는 G7 진입 시기를 예측할 정도였고 일부 재벌은 하나같이 ‘초일류’, ‘최우량’, ‘세계 최고’ 등과 같은 화려한 구호를 남발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건국 이래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으나, 그간 한국의 국력이 유례없이 신장된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였었다는 자신감은 그대로 견지될 필요가 있다. 실지로 한국 경제규모의 양적 팽창은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과거 우리 경제성장을 ‘압축형 경제 성장’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고 있다.⁶⁾

여기서 압축이란 산업화 성취에 소요되는 시간의 압축이다. 경제사학자들의 추계에 따르면, 자본주의 산업화를 세계 최초로 이루어내 영국이 우리 정도 규모의 경제로 성장하는 데 무려 2세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오늘날 거의 유일하게 안정된 지속적 경제 발전을 향유하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또한 한 세기 반이 소요되었다.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 수준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거의 한 세기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한국경제발전은 1960년 중반 이래 시작된 수입대체용 상품생산에서 시발되었고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으로 30여년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GNP 만불 수준에 이르는 데 소요된 시기는 약 40년 내외이었다. 물론 규모의 성장만을 지나치게 서둘러 졸속 성장이 이루어지고 내실은 허약한 가운데 팽창이 지속되었으며 결국 부의 불평등 구조는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어 나중에 거품 경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으나, 규모의 경제에 관한 한 놀랄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지난 3, 40년간의 한국의 경제발전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같은 시기 가나안농장 또한 초기 황무지 개척에서 출발하여 농군학교의 설립, 일가의 전국 순회강연, 가나안 정신교육의 전국적 확대, 제 2농군학교의 설립, 재단법인화, 가나안농군학교 1,000회 교육, 중국과 동남아 지역 해외 농군학교의 진출 추진 등으로 변화되었다. 후술하겠지만, 가나안정신교육의 전국적 확산의 역사는 실상 ‘압축형’ 경제성장의 변천과 그 궤를 같이 하였다. 부존 자원도 많지 않고, 더구나 산업화의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자본이나 기술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 산업화가 출발하였다. 차관과 기술도입 형태로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하였다. 우리에게 풍부한 것은 대규모의 양질의 노동력

이 있었을 뿐이다.

같은 시기 한국 근대교육 또한 급속히 팽창하였다. 해방 직후 경제인구의 약 3/4이 문맹자였으며, 일본의 교육기회 박탈정책으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률조차 60%미만이였다. 더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남북한 모두 주요 교육시설이 심하게 파괴되었다. 전쟁 후 50년대 한국교육은 폐허에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우리민족 역사만큼이나 오랜 국민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의로 50년대 이후 학교교육은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60년대 말까지 초등학교 취학률은 100%에 도달되어 사실상 초등수준의 보통의무교육은, 양적인 의미로, 완료되었다.

한국 경제가 수입대체용 상품 생산에서, 수출을 위한 소비재 상품 생산으로 전환하며 경공업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70년대부터 중등교육이 급속 팽창하였다. 80년대 중화학공업화로 전환될 시기, 중등 취학률은 90%에 도달되었고 고등교육(2년 제 포함) 취학률 또한 40%에 이르렀다. 이처럼 한국교육은 경제발전의 주요 단계 단계마다, 경제적 요구나 필요에 앞서, 미리 양질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산업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력 그 자체만으로는 생산현장에서 생산력을 높일 수는 없다. 이 노동력은 일정 정도 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특히 상당 정도 규율된 노동력이어야 한다. 이 점 한국 근대교육을 통해 길러진 노동력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주지한 바, 한국교육 팽창의 추동력은 상급학교 입학이다. 따라서 초, 중등 교육과정은 인문중심이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수준의 학생이, 또는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이 안될 경우 직업교육을 택하게 된다. 인문중심 교육이 팽창한 결과 직업 기술 및 기능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기능기술교육은 산업 현장의 생산 기술과 조응하지 않았다. 70년대 후반 중등 실업교육이 강화되었으나 학교에서의 기능기술교육은 중화학 공업 생산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시기 매년 시행되는 기능올림픽에서 다른 선발산업국가의 기능공과 경쟁하여 두서의 성적을 올림으로써 높은 수준의 기술기능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학교에서는 공식 또는 비공식 교육과정을 통해 인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신념 및 관행을 학습하게 되는 점이다. 소위 ‘교육열’이란 전 국민사이에 편재된 육체노동 기피와 정신노동 선호의 반영이었다. 입시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실패’한 학생이 대부분 부정적 자아개념을 경험하고 어쩔 수 없이 육체노동직을 선택하여 생산 현장으로 들어갔다. 한국 교육은 엄청난 규모의 노동인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으나, 생산성 증대의 기반이 되는 기능 및 기술 수준이나 직업윤리의 내면화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로의 공급이었다.

초기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은 ‘대규모’, ‘저렴’, ‘양질’의 노동력이다. 중등보통교육의 완성으로 일정 규모의 노동력을 확보하였고 대학입시에 이르는 ‘사다리’에서 탈락된 저학력 졸업생은 ‘저렴한’ 노동력 공급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력의 ‘질’이며, 특히 기능 측면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인식, 태도, 가치관, 자아 정체성(identity) 및 인성 등과 같은 비경제적 비기술적 측면이다. 다시 말하면, 건전한 직업 의식과 윤리의 확립이다. 그러나 공교육은 이처럼 직업의식이 확립된 ‘양질’의 노동력 보급 기능은 원활하지 못하였다. ‘양질’의 노동력 생산은 따라서 학교교육 이외의 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가나안농장에서의 개척자 양성이 그것이다.

일가가 세운 가나안농군학교는 원래 황무지 개척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초기 교육과정에는 일가 선생 특유의 신앙훈련이나 정신교육 외에 각종 농업 기술 및 실습과정이 있었다. 황무지 개간 7개년 사업, 고구마 농사와 12개월 저장법, 축산, 딸기, 포도, 작약 등 소득증대와 관련된 농업기술 등도 가르치었다.

황무지 개척이란 그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강인한 정신력과 헌신이 요청된다. 이를테면 근검과 절약을 철저히 생활화하여야 하며, 농업노동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마음 자세가 요청된다. 서양 개신교 청교도들처럼, 직업을 일종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신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려는 확고한 정신적 결단이 필요하였다. 일가 가계의 신앙계보나 초기 개종과정을 살펴보면 일가의 신앙은 개신교 가운데 청교도적 신앙을 견지하는 선교사들과의 교섭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일가는 일종이 토착 청교도였다. 그는 또는 그러한 신앙노선의 생활화를 강조하여 생산노동은 물론 가정생활과 사생활에서까지 그것을 철저히 실천하였다.

일가는 교육장면에서도 농업생산 기술보다 일하는 마음과 같은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일가가 강조한 정신적 측면은 2장에서 언급한 대로 기독교 복음에서 도출된 것이다. 일상적 생활규율이란 측면에서는 초대 교회에서 보인 ‘유무상통’의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였고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청교도적 신앙과 윤리에서 황무지개간의 정신적 근거를 구하였다. 일가의 그러한 교육정신은 일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민족적 과제로 등장한 지속적 자본주의 산업발전이라는 시대 정신에 조응하고 있었다.

실지로 가나안농군학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은 농업생산기술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훈련이 아니었다. 그간 ‘정신교육’으로 알려진 일가 특유의 인성교육이었다. 그는 기술훈련에 앞서 ‘참 살길’을 가르쳤으며 실지로 농군학교의 교육효과는 농업기술훈련보다는 이른바 ‘인간교육’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가가 전국 각지의 교회를 위시하여 각급 학교, 기업체, 군부대 및 공공기관에 초청 받아 강연할 때의 가르침의 주제 역시 ‘참 살길’이었다. 따라서 농촌에 투신하여 한국 농업을 부흥시키려는 후 세대 농업지도자는 물론 참된 인성교육 그 자체에 매료된 각계 각층의 국민이 가나안농군학교를 찾았다.

일가 선생이 제시한 교육이상으로서 ‘참 살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은 이 글의 범위를 훨씬 넘어 가는 것이다.⁷⁾ 그러나 그가 제시한 ‘참 살길’의 중요 요소는 노동하는 인간,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인간과정 또한 농민운동을 후속 세대를 위한 정규과정 이외에 특별과정이 마련되어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게 되었다. 일가의 정신교육이 국가적 관심사로 주목받게된 계기는 70년대 초 정부가 추진한 새마을운동과의 조우이다.

새마을운동은 제 3 공화국이 국력을 총동원하여 시행한 국민동원 사업이다. 군사혁명을 주도한 박정희 의장은 혁명 이후 전국을 돌며 민정 시찰을 하던 중 가나안농군학교를 찾게 되었다. 일가와 박 의장의 만남으로 가나안농군학교에서의 정신교육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정부 주도 국민정신교육의 토대가 되었다. 이농현상을 막고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농촌재건을 담당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독농가 연수원이 농협 부설기관으로 세워졌다. 일가는 이 연수의 핵심 강사일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자 연수과정 자체가 일가가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시행하여온 과정과 일치하였다.

대통령 취임 후 농촌발전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었고, 당시 청와대 농업경제 담당 수석이었던 박진환 박사의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새마을운동에 착수하였다. 일가의 정신과 사상은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원천이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또 공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일가의 교훈과 가르침 또한 농업에 머물지 않고 같은 궤적을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가나안농군학교 또한 종래 황무지개척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외에 전국 각지에서 채도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기 특별과정을 설치하여 각계 각층에서의 정신교육을 시행하였다.

가나안농군학교의 특별과정의 역사는 실지로 압축형 경제성장의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한다. 특별과정은 한국 공업화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올바른 직업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민교육과정이었다. 이 과정에는 스스로 찾아오는 국민 이외 각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의뢰한 연수생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농군학교의 여러 과정 가운데 특별과정은 그 회수에서나 훈련된 졸업생의 수에서 가장 괄목할 만하다. 세계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한 사회교육기관에서 20여 년 동안 같은 정을 1,000회 이상 반복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8)

개교 이래 계속된 종래 정규과정, 청소년과정, 성직자과정(농목과), 이동농군학교과정에 이어, 특별과정이 괄목할 만하게 발전됨으로써 가나안농군학교는 말 그대로 국민교육기관이 되었다. 이는 마치 국민고등학교가 덴마크의 국난극복 부흥의 역사에 긴요한 정신적 인적자원을 제공하였던 경우에 비견되며, 인도의 진실도장(Satyagraha Ashram)이 설립자이자 인류의 영원한 스승인 간디 선생이 이끈 인도의 對 영국 정치적 독립운동과, 건국 후, 신앙적 정신적 통일운동에 요구되는 정신적 인적자원을 공급 경우를 방불한 것이다.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와 인도의 진실도장은 모두 진실에의 헌신, 그것을 통한 참다운 인격의 완성, 도덕과 윤리적 힘을 바탕으로 한 국가 건설을 성취한 대표적 성인교육기관이다. 몇 년 전에 이루어진 한 비교교육학적 연구에서와 같이,9) 이 두 사례와 가장 유사한 국내 사례가 가나안농군학교이다.

한국의 산업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이루어질 때 산업화의 3대 전제조건은 자본과 기술 및 노동력이다. 주지한 바, 한국의 경우 앞의 두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외국에 의존하였다. 나머지 조건이자 더 중요한 조건은 국내에서 자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교육은 지적 수준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직업윤리 또는 노동규율의 확립이란 점에서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었다. 대안이 가나안농군학교였다.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교육 장에서 이를 수 없었던 인성교육과 규율훈련에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개교 이래 3~40년간 무려 60여 만명이 어떤 형태의 정신교육과 인성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같은 기간에 이뤄진 압축형 경제성장을 생산현장에서 묵묵히 수행하였다. 60년대의 빈곤해방운동은 우리 나라 국력 신장에 긴요한 확고한 직업윤리와 엄격한 노동규율을 생활화한 책임 있는 인간의 재창조 형태로 전개되었다.

4. 새로운 도전: 일가 정신을 통한 IMF체제 극복

지금까지 일가의 정신을 그의 생애사와 그의 생애와 중첩된 근대사의 특징과 관련시켜 살펴 보았다. 일가는 ‘타고난’ 지도자이지만, 그 이상 주어진 불행한 역사를 개척하는 과정에

스스로 ‘만들어낸’ 지도자이다. 그의 전 생애는 빈곤해방을 위한 삶이자 투쟁이었다. 그는 물질적 빈곤과 그것과 깊게 관련된 정신적 빈곤을 함께 몰아내고자 하였다. 주어진 역사적 현실이 가혹할 만큼 그의 생애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통에 찬 몸짓처럼 보인다.

그는 현대 한국 지도자의 대부분이 그런 것과는 반대로 시류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그는 ‘독선적’ 인물로 기억되기도 하였다. 일가는 빈곤을 퇴치하되 그 원인과 동인을 뿌리부터 퇴치하고자 하였다. 30년대 농촌의 빈곤은 식민지 수탈과 민족말살정책에 의해 창출되었다. 일가는 20세의 나이에 “조국이며 안심하라”는 깃발을 내걸고 반제, 반일, 국권회복을 위해 농민운동에 헌신하였다. 그의 꿈은 독립된 부자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인 이상촌이었다. 초대 교회 시절 얼핏 그 모습이 보인 ‘유무상통’의 공동체 또 토끼와 사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 젓과 꿀이 흐르는 복된 나라의 건설이었다. 수미일관 성서에 기록된 바와 같은 공동체였다.

일가는 그 꿈을 이 땅에서 실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그의 꿈이 허황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필자처럼, 이른바 그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후학들이 그 꿈의 깊이 또 그것을 쟁취하는 데 요구되는 자기 단련과 희생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식민지 수탈의 폐해로, 건국 후에도 또 전쟁으로 인한 폐허화 탓에, ‘보릿고개’, ‘춘궁기’ 형태로 절대 빈곤이 지속되자 그는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일가도 그에 상응하는 지도적 인물처럼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진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외국’ 개척자로 평생을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살았다. 일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헌신하였고 60년대 한국 경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 몸부림 칠 때 일가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내었다.

외국서 벌어들인 자본과 기술에 더하여 ‘양질’의 노동력이 가세되자 경이적인 국력신장의 역사를 성취하였다. 그러나 규모의 팽창과 시간 단축에 지나치게 천착하여 내실을 기할 수 없었고, 경제정의 구현에 실패하였다. 그간 확대 재생산된 빈부격차는 부의 편재를 이루었다. 특히 자신의 노동에 근거하지 않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소위 ‘무임승차’는 거품경제의 선도 주자로 사치와 낭비에 앞섰다. 허약한 내적 힘으로 유지되던 경제는 외부 자극에 순식간에 무너져 IMF체제를 초래하였다.10)

피상적으로 한국 경제가 ‘육일승천’하는 듯 보일 때, ‘초일류’ ‘최우량’을 목표로 내걸 때, ‘국제화’와 ‘세계화’ 구호가 풍미할 때 일가가 보여준 일상 생활과 그 생애는 너무 초라하게 보였고 구시대 유물로 보였다. 마르지 않고 솟을 것 같은 그 혼한 물을 아끼자고 했으니, 과소비 시절 그 어느 누구도 일가의 생애와 고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겠는가? 오늘의 경제위기는 사필귀정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잊고 교만하게 사치스럽게 살려고 하였기에 오늘의 위기가 온 것이다.

지금은 다시 한번 일가의 고뇌, 그의 꿈, 그의 투쟁을 생각할 시기이다. 일가는 왜 가난과 싸울 때, 피상적 증세가 아니라 그 환부의 핵심에 달려들었는가? 그는 왜 시류에 거슬러 살려고 하였는가? 그는 왜 이 땅의 부와 행복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고 하늘을 향하였는가? 그가 매일 새벽 치악산 기슭 구국기도실에 올라 2시간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우리가 IMF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와 같은 질문을 화두로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야될지도 모른다. 같은 화두를 가진 이웃이 힘을 합쳐 자신과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10년 전 소천하시기 직전, 손을 들러 가리킨 그곳을 향하여 함께

‘정신’ ‘개척’ 구호를 외치며 달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곳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복민운동일지도 모른다.

일가는 가셨지만 그의 유훈인 복민운동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 길은 분명 ‘참 살길’이다. 그 길은 정치경제학적 ‘해방’의 사회이자 ‘도덕적 자율’로 규율되는 사회 「21세기 이상촌」으로 향한 길이다.

1) Max Webber의 선택적 친화(selective affiliation)는 사회과학에서의 인과적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두 요소간의 교섭과 그것을 통한 상승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칼빈신학에서 나타난

청교도 특유의 직업관 -소명으로서의 직업- 과 자본주의 기업정신 두 요소간에 작동한 상호작용이

서구의 자본주의 발달을 이끌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후학은 이를 인과적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MaClelland의 Achieving Society와 그것을 변안한 성취동기 육성과정이 그것이다.

이 과정의 핵심 논지는 인간의 마음에 성취동기를 불러일으키어 개인의 성공과 그 연장으로서

국가발전을 성취하자는 것이다. 60년대 경제발전이 초미의 관심일 때 제기된 주장이다. 정범모,

박용현, 『성취동기:그 육성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배영사, 1969.

2) 이일선 목사의 봉안 이상촌 관찰기는 김용기 『참살길 여기 있다』, 서울:배영사, 1977 부록 참조.

3) ‘식민지 근대화론’은 90년대에 들어 외국인 한국학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Cater J. Eckert, Offspring of Empire: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976-194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한 국내 경제학자는 소위 ‘증진 자본주의론’을 통해 6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 성장을 식민지 시기 제한된 경제발달에서 찾기도 한다.

4) 고종 무능설의 허구성과 그 기원에 대해서는 이태진, ‘고종황제 암약설 비판’, 『고종황제의 재조명』,

대한제국선포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 논문, 1997. 또는 줄고, ‘광무제의 주권 수호외교’, 이태진(편)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994.

5) 일가는 교회 설교나 대중 연설시, 몸양이 그랬던 것처럼, 2 시간 이상 꼳꼳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물 한모금 마시지 않고 열변을 토한다. 또 그의 강연은, 교회설교나 대중 연설이든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쉬운 말로 예를 들어가며 청중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하며 메시지를
마음 깊은 곳에
전달한다.

6) 한국 경제발전의 주요 특징을 ‘압축형’으로 보는 입장은 조 순, ‘韓國經濟發展- 그
特性和 문제점’,
『經濟論集』, 제 27권 4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88:405-430 참조.

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 지도자로서 일가의 여러 특징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독립운동지도자로서, 농민운동가로서 또는 사회교육지도자로
서

그가 성취한 업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장 필수적 과제는 그의 사상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8) 여기서 1,000회란 경기도 하남시 소재 제 1 농군학교에서의 과정만 계산한 것이다. 당시
강원도 원주군 신림 소재 제 2 농군학교에서의 과정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두
학교의

과정을 모두 포함시키면 1997년 당시 1,500회가 넘는다.

9) 줄고, 『가나안 정신교육』, 가나안농군학교 (성인용 교재), 가나안농군학교 복민주의 연
구실,
1974.

10) IMF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경제의 허약성과 그 극복 방안은 정 운찬.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서울: 백산서당, 1998.

논찬

「복민운동의 등장과 영향」에 대하여

김 형 석 사무총장(한민족복지재단)

오늘 우리는 질곡의 한국 현대사를 용기있고 슬기롭게 헤쳐 나간 한 선각자의 업적을 조명하고, 그 분의 생애와 사상으로 부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난을 극복할 정신과 지혜를 본받기 원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E.H.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만, 우리는 구태여 이 말의 뜻을 새겨보지 않더라도 ‘선생의 10주기를 맞는 오늘 이 시간, (조국의 분단과 IMF의 환란에 처해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왜? 일가 김용기 선생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조명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어지고 토론되어지는 연구의 성과들은 단순히 선생의 업적을 기리거나 추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적용되어지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실학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제강연을 맡으신 이만열 교수께서는 「한국 농민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一家의 생애」를 통해 이 문제에 선행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발표되어지는 두 편의 논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토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규무 교수의 논문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적 인물을 조명할 때에는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교수는 「복민운동의 등장과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일가 선생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민운동의 실체에 관해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일제시대의 한국기독교농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위논문으로 완성한 전문가답게, 복민운동을 대표적인 기독교농민운동으로 이해하고 그 틀 속에서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점은 이제까지 발표되어진 복민운동의 연구성과들이 대부분 일가 선생의 개인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서 역사학계가 학문성을 인정하는 데 인색했었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하나의 큰 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다른 측면 즉,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가지 잣대 가운데 복민운동의 등장 배경을 지나치게 1930년대 경기도 양주군이라는 한국농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농촌운동의 한 전형으로 해석함으로써, 복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그 속에 담긴 사상성을 파악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가 선생이 겪었던 청소년기의 방랑이나 중국으로의 유랑, 3·1운동에의 경험과 몽향 여운형·여운혁 형제와의 교유 등이 끼쳤을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복민운동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발표자가 당시에 일어났던 기독교농민운동이 한결같이 한시적으로 진행되다가 실패하고 말았으나, 복민운동은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에 대한 차별적 요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일가 선생의 항일성과 여타 농촌운동가들의 대다수가 친일성향이었다고 지적한 점은 좋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복민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발표자는 복민운동의

흐름을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봉안이상촌 시대에 관하여는 1930년대 농촌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였던 기독교농촌운동의 일환으로 설명하였으며, 두 번째 시기로는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삼각산농원과 에덴향 그리고 가나안농원 건설로 대표되는 잇달은 개척과 도전의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 시기는 1962년 가나안농군학교 설립 이후 농촌계몽운동과 농민교육의 시기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단계가 일가 선생의 농민운동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전개된 과정이나 내용상의 변화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없이 단지 평면적이고 연대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탓으로, 당시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복민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의 추출이나 사회에 끼친 영향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도 결론부분을 통해 고백하고 있듯이 복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이나 한국현대사 또는 한국농민운동사에 끼친 공헌, 그리고 이에 관한 역사적 평가가 없이, 복민운동이 걸어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이 논문이 보여주는 한계이자 앞으로 발표자에게 주어진 학문적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옥고로써 일가선생과 복민운동에 대한 역사적 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신 한교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가나안농군학교와 한국의 농촌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논 찬

한규무 교수의 ‘복민운동의 등장과 영향’에 관한 토론

김지자 교수(서울 교육대학교)

토론에 앞서, 국민들에게 농민과 농촌을 위해 몸바친 가장 두드러진 한국의 인물중 하나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일가 김용기 선생님의 10주기 세미나에 토론자로 서게 됨을 본인으로서 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 토론자는 일가 선생님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한 바도, 그분의 저서를 탐독한 바도 없었고, 더구나 가나안 농군 학교의 정규 교육을 한번도 제대로 받아 보지 않은 처지여서, 그저 조찬 모임이나 일가상 시상식장에서 귀동냥으로 들은 것으로 좀 아는 체 할 정도였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토론의 기회는 새롭게 일가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계기가 되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규무 교수님의 논문은 제목과 같이 복민운동의 의미를 나름대로 규정해 보고 복민운동의 등장배경, 복민운동의 성격, 그리고 복민운동과 기독교 농촌 운동과의 비교 고찰에 의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하면서 복민운동의 영향력을 새마을운동의 모태라는 관점에서 비교 평가하고자 시도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한 교수는 김용기 선생님과 관련된 서적 10권중 7권을 중심으로 하여 본 논문을 쓸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특히 복민운동이란 용어의 연원을 밝히기 위하여 이 모든 책들을 역사적으로 고증을 하고 그 결과, ‘복민’은 ‘복을 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복민운동’은 ‘농민과 농촌을 위한 김용기의 활동 전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복민운동이란 용어가 직접 나타나기는 1970년대라고 밝히고, 1970년 전반까지 나온 책에서 복민운동이란 용어를 찾지 못했다고 각주를 달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7권의 저서들은 우연하게도 1965년으로부터 1980년에 이르는 기간에 출간된 저서들로서 1990년대에 출간된 서적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아쉬웠으나 특히 본 논문의 전개가 역사적 고증의 성격을 띠고 있어 납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교수는 1920년도 부터 봉안이상촌이 세워진 당시의 기독교 농촌운동이나 양주 군의 사회경제적인 배경 등을 찾아내기 위하여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들의 수집에도 대단한 노력을 경주하시었고, 특히 김용기 선생의 일생에 걸친 활동을 중심으로 한 복민운동을 학문적으로 분석 고찰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학자적 안목과 노력에 크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교수는 복민운동의 성격을 개척성, 창의성, 지속성 외에 개방성과 민족성 지속성에 관한 성격을 들고 있는데 특히 개방성과 민족성의 지적은 일가 선생의 사상의 폭을 이해하게 하는데 대단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복민운동과 기독교 농촌 운동과의 유사성의 비교 부분은 그 시대의 기독교 농촌 운동이 소작인들의 쟁의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통한 빈곤의 극복을 지향하려 한 가나안 농군 학교의 교육과정의 뿌리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소위 급진주의적인 농촌 운동과 차이가 있었음도 잘 지적해 주고 있었습니다. 복민운동이 신앙 중심, 교회중심, 정신적 각성, 합법적이고 온건한 노선을 취하고 생산 분배

의 개선보다는 생산의 증가에, 그리고 현실도피적인 신앙을 비판하고, 문맹의 퇴치-단체의 조직-농사 개량-지도자의 양성에 이르는 덴마크의 협동조합 운동과 국민 고등학교 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의 지적은 크게 주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 토론자는 한 교수의 역사적 실증적인 접근과는 다른 각도에서, 복민운동의 의미를 유추할 수도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즉 일가 선생님이 1954년 제 4차 가나안 농원을 개척할 때 이미 ‘가나안 복지’의 의미를 존중했고 가나안 농군 학교를 개설할 때 복민운동과 복민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소위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과 희망의 땅이며, 잃은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땅’ (김평일, 1994:320)에의 염원과, 버려진 땅에 대한 도전이며 개척이고 일하는 자에 대한 도전이며 개척이고 일하는자에 대한 풍요와 축복이 약속된 땅으로서의 가나안 땅과, 그 안에서 생활하는 ‘복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영광을 알며 화답하는 사람으로 서로 가나안 복지에 사는 ‘가나안 복민’이란 성서적인 접근과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임을 사족으로 다는 바입니다. 그러나 복민운동이 농촌 운동, 농민의 운동으로서 일가 선생님의 농민, 농군, 농군 사관으로서 국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복음 전파와 더불어 심으려 한 노력을 특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논찬

김기석 교수 논고의 평가 및 토론을 위한 글

고재성 기획실장(제2가나안농군학교)

글 전체는, 일가 김용기 장로의 생애와 그의 업적들이 현재의 IMF시대에 어떻게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있는가를 재조명하고 발굴해 내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지난 과거의 인물이지만 그의 특이한 생활과 고난의 길이 어떻게 그 시대를 초월하여 현재와 동시에 미래에 빛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여부를 검증하고 밝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기석 교수의 논고는 한 주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증거자료를 있는 대로 끌어내고 논쟁식으로 진행된 학술적인 연구논문이나 한 인물의 전 생애를 출생부터 말년까지 기술하는 전기의 성격보다는 제한된 지면을 통하여서 현재의 시대를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찾는 데에 시종일관 노력을 기울인 영감과 통찰력이 넘치는 규범적인 글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도 이 글을 통해서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단순한 비판적인 선을 넘어서 참신한 대안적인 생각들을 주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 전체를 읽어나가고 있는 중심 질문 하나는 사람의 성품과 능력은 상호 차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소위 일가 같이 뛰어난 인물은 후천적인가 또는 선천적인가 하는 질문이다.

글의 전반부는 교육이라고 해봐야 별로 받은 것이 없는 그에게 타고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생이지지’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의 타고난 능력을 예로써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을 한국에 가장 적절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독창적인 능력을 말한다. 그의 타고난 날카로운 투시력과 판단력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첫째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양자수속’으로 해석하였고, 따라서 예수의 중심 교훈 중의 하나는 우리 민족의 중심사상인 효 사상이라는 판단을 해낸 것이다.

둘째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에게는 두 개의 못자국, 즉 하나는 십자가상에서 못질의 결과로써 또 하나는 평소의 목수 노동의 결과로써 생겼다는 해석이다. 이런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평생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해야 한다는 기독교적 노동관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청교도 정신의 만남의 한국판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요한복음의 구절에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가에서는 우리 민족국가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애국심을 갖고 조국을 위해서 몸바쳐 살 것을 강조했다. 일제 치하에서 해방과 빈곤 추방 및 분단의 극복을 통한 젓과 꿀이 흐르는 평화로운 조국을 이루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글의 후반부에는 이런 일가의 능력은 위에서 열거한 대로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일 개인이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후천적인 것임을 예를 들어가며 설

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후천적인 능력과 성품이 오늘날과 미래의 한국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학습 또는 전승 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능력은 봉안이상촌 때부터 이미 형성이 되는 불굴의 황무지 개척의지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내하고 헤쳐나가는, 그래서 성취하고자 하는 능력을 말한다. 동시에 이런 능력이야말로 일가를 만든 가장 주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능력은 농군학교의 교훈으로 대표되는 근로·봉사·희생의 삶에서 구현될 수 있다. 현재의 복민운동이 일가 만한 인물을 낳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타고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피와 땀의 노력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후인들의 부족함이 그 대답이다.

따라서 사회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변혁할 수 있는 해결책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달려가는 후인들의 희생들이 그 대답으로 보인다.

김기석 교수의 글은 일가의 업적과 능력을 그의 뛰어난 '머리'보다는 후천적인 피와 땀의 노력과 고난과 희생에서 기인한 것으로 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복민운동 또는 복민주의 실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론적인 기초 근거를 제공했다. 이 점은 복민운동의 전승을 위해서는 중요한 이론적인 출구를 여는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21세기 미래를 향한 비전 제시가 개인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호소적인 일반론 선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따라서 토론을 위한 논쟁점 제시가 언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 글의 처음부터 의도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는 하다.

하여튼 이런 일반성을 구체성으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토론을 위한 몇가지 구체적인 논쟁 문제를 제시하려 한다.

첫째로, 일가의 복민사상의 핵심은 우리 시대의 시공에 맞춘 기독교 복음의 적합한 해설과 실제적 구현이었다. 이런 것이 시공이 변화할 수도 있는 21세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새로운 시공에 맞추는 복민적인 작업이, 즉 일가를 일가로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인간이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즉 여태까지 있어온 일가의 사상과 업적 및 농군학교와 복민운동에 관련된 이론과 실천 및 제도 등의 모든 것들을 역사화된 복음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제도나 업적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업적과 제도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검증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고착되지 않고 진정한 복민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현상적으로 드러난 농군학교를 주축으로 하는 복민운동은 복민적인가 아니면 반복민적인가?

둘째는 봉사·희생의 정신이 약한 후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일가 사상을 계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가? 농군학교의 4박5일 교육은 이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공동체 생활이라도 필요한 것일까? 농군학교 교육에 감명받은 나이든 사람은 종종 보지만 젊은 사람은 보기 힘든 것은 왜일까?

셋째는 복민운동을 위한 역량이 충분히 집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증거는 일년에 한번도 같이 모두 모여서 복민적 삶의 경험을 열어놓고 교환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는 모임이 없기 때문이다. 예로서 일가상이나 일가의 추모를 위한 모임만 가지고는 부족하

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와 팀이 필요한 것인가?

넷째는 일가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화 작업을 위한 행동하는 아카데미가 필요할 것이다. 아카데미 구성원은 복민적 삶의 현장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작업을 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논 찬

김기석 교수의 ‘21세기 복민운동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논찬

오세택 목사(두레교회)

우선 일가의 지도역량을 ‘타고난’ 역량과 ‘만들어 낸’ 역량의 명쾌한 구분과 그리고 두 요소의 끊임없는 조화를 생애사적 관점에서 조명한 김교수의 시도는 탁월했으며 일가의 사상과 생애가 보다 더 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별히 일가의 지도역량을 ‘타고난’ 역량에서보다 식민지 폭정과 빈곤이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성서적 근거를 획득하며 적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역량에 더 의미를 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 논문에서 돋보인 것은 일가의 삶과 모든 생애적 활동의 방향과 철학의 근원이 되었던 것으로 ‘영육일체론’에 입각한 빈곤해방운동이었다는 관점이다. 일가의 인류의 제1의 공적은 인간의 비인간화를 초래하고 억압되고 왜곡된 삶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가난으로 보고 이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 싸웠다는 해석은 일가를 이해하는 핵심 명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가의 활동이 철저한 보수신앙을 견지하면서도 상당히 사회 진보적 성향을 가지게 된 원인을 몽양의 영향으로 해석한 부분도 새롭다.

일가의 삶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시대적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언급하면서 30년대 봉안 이상촌 운동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대한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대응으로 평가한 점과, 60년대 이후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 공동체적 책임 의식과 사명의식이라는 노동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므로 초기 산업화 시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과 절대 다수의 소외된 노동자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을 회복했다는 분석은 일가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몇가지 아쉬웠던 점은, 우선 일가의 ‘타고난’ 지도역량의 예로 ‘양자수속’에서 효 사상을, ‘두개의 못자국’에서 노동의 정통성을, ‘하나님 나라’에서 한반도 신국론을 정립하는 인련의 신학적 토착화라는 논지는 오히려 성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효와 노동에 대한 신학적 정립을 하려고 했다면 더 합당한 성서적 근거를 들었어야 했을 것이다. 차라리 일가의 성서 해석의 탁월성 보다는 성서 적용이 지극히 현실적이며 구체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반도 신국론에 대한 반론으로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노랫말을 지었는데 그 노랫말 마지막 절귀는 반드시 종말론적 천국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리고 일가의 정신을 근대사에 중첩된 그의 생애사를 살피기로 했다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생략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70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인간성 상실과 환경 파괴에 대한 종말론적 영성운동에 대한 언급이나, 유신개헌 반대 등 개발 독재 시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투쟁적인 삶이 생략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아쉬운 점은 김 교수가 논문 서론에서 밝혔듯이 일가의 생애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느냐는 현재와 미래에 둔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가의 유훈인 복민운동으로 정치경제적 ‘해방’의 사회이자 ‘도덕적 자율’로 규율되는 사회, 즉 21세기 이상촌이라고 언급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이다.

특히 복민운동의 실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 가나안농군학교의 위상에 대한 분석이나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 제고가 없었던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